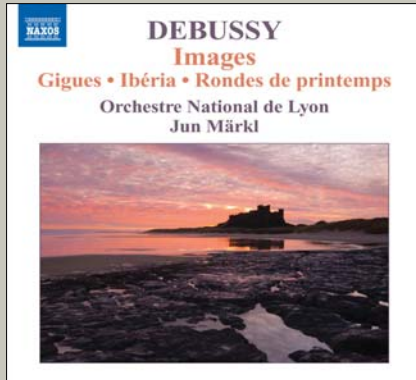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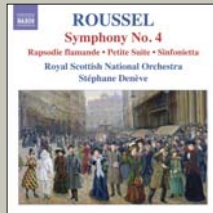


Naxos new rel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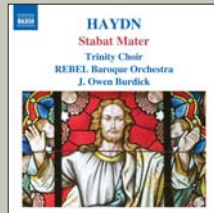
8.572296



드뷔시:
영상, 렌트보다 느리게, 사라방드 외
윤 매르클/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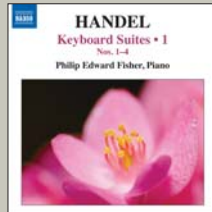
8.572135
루셀:
교향곡 4번, 플랑드르 랩소
디, 시포니에타, 작은 모음
곡 외
스테판 드네브
로알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
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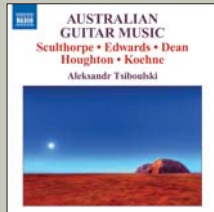
8.572121
하이든:
스타바트 마테르
트리너티 콰이어
J 오웬 버딕
레벨 바로크 오케스트라



8.572277
안데르센: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살롱 음악들
카일 자포(fl)
매튜 마초니(pf)



8.572197
헨델:
건반 모음곡 1-4번
필립 에드워드 피셔(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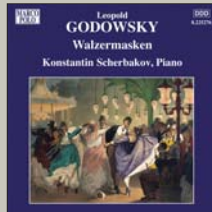
8.570949
호주의 기타음악들
(에드워즈, 허프턴, 스컬토
프, 코엔, 딘)
알렉산더 치보울스키
(gui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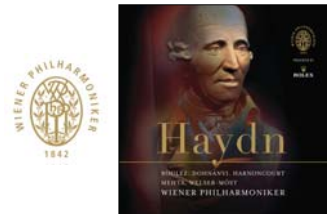
8.570991
요아힘:
바이올린협주곡, 단악장 협주
곡
김수연(vn)
미카엘 할라스
바이마르 슈타츠히켈레



8.111346
쇼팽:
폴로네이즈
아르투르 루빈시타인(pf)



8.225276
고도프스키:
피아노작품집 Vol.10
(Walzermasken)
콘스탄틴 셰르바코프(pf)



WPH-L-H-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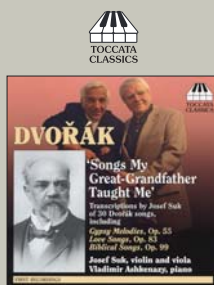
하이든: 교향곡 12, 22, 26, 93, 98, 103, 104번 [3CDs]

도호나니, 벨저-외스트, 메타, 아르농쿠르, 볼레즈/ 빈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최초의 자체 제작 음반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하이든의 서거 200주기를 기념하여 출시 하였던 자체 제작 음반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최정 상금의 5명의 마에스트로와 남긴 일곱 교향곡의 실황녹음을 3장의 CD에 나눠담았다. 1972년 주빈 메타 가 지휘한 22번의 실황부터 특히 아르농쿠르와 벨저-외스트가 지휘한 93번, 98번, 103번은 바로 2009년의 최신실황들까지 망라되었으며, 비교적 접하기 힘든 도호나니(12번)와 볼레즈(104번)의 하이든 도 이 음반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ODE1167-2D [2CDs]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전곡
미하일 플레트네프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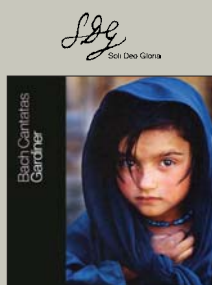
TOCC0100
나의 증조부가 가르쳐준 노
래들(드보르작 가곡 편곡)
요제프 수크(vn)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pf)



610 1578-2
클레시가 아르헨티나(탱고의
역사, 탱고 에튀드 외)
프란시스코 보몽(alt)
아네트 마이부르크(fl)
호아킨 클레지(guitar)
귀도 시펜(vc)



LPO-0044 [2CDs]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이본 케니(sop)
야드 반 네스(ms)
클라우스 멘슈테트
런던 필하모닉과 합창단



SDG 165 [2CDs]
JS 바흐:
칸타타 Vol.2
여러 가수들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어트 가디너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리스트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www.aulosmedia.co.kr

[판매처] 전국 교보유통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에스24/ 알라딘/ 뮤직랜드/ 인터파크/ 애반/
풍월당/ 예전레코드/ 하이클래스/ GM뮤직(부산)
뮤직프라자(종로)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42호 | March 2010

DVD Hot Issue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롤랑 디앙스

Blu-ray Hot Issue
빈민가 청소년들과 베를린 필이 함께 만든 감동의 드라마
Rhythm Is It <리듬 이즈 잇>

Cover Story
빈 소년 합창단
<실크로드를 따라가며 부른 노래들>

세계 최고의 소년 합창단이 내놓은 야심찬 월드 뮤직 프로젝트

“실�크로드에 울려 퍼진 빈 소년 합창단의 노래들”

빈 소년 합창단 실크 로드에서 가다!!

빈 소년 합창단의 노래는 누구나에게 ‘추억’을 선물한다. 우리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향기가 빈 소년 합창단의 노래에는 들어있다. 그 추억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이 제작되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영화제작자 커트 포던은 거의 1년에 걸친 준비과정을 통해 빈 소년 합창단을 담은 특별 기획물을 제작했다. 실�크로드를 따라가며 제작된 이 영상물의 O.S.T이기도 한 빈 소년 합창단의 노래들은 영상과 사운드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마치 김광규 시인이 표현한 ‘분수처럼 흘러지는 푸른 종소리’ 처럼...

이 DVD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빈 소년 합창단에 관한 꿈이다. 빈 소년 합창단은 하이드노 슈베르트도 한때 그 단원이었던 유서 깊은 소년 합창단이다. 하지만 빈 소년 합창단은 이제 오스트리아나 유럽의 소년들만을 위한 합창단이 아니다. 공정한 오디션 과정을 통해 선발되는 빈 소년 합창 단원들을 눈여겨 본다면 ‘꿈’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DVD는 빈 소년 합창단에 관한 다큐멘터리이면서 한편의 음악영화이자 기행물이며, 꿈을 향해 이끌어주는 멋진 교육서이고 가이드 북이기도 한 것이다.



고대부터 시작된 동서양의 교역로

‘실크 로드’에 대해서는 역사에 무관심한 사람일지라도 모르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우리말로도 그대로 ‘비단길’로 번역하는 ‘실크 로드’는 고대 중국의 특산물인 명주를 서방의 여러 나라에 운반해간 길, 그러니까 내륙 아시아를 가로질러 중국과 서아시아, 지중해 연안 지방까지 연결되었던 무역로를 가리킨다. ‘실크 로드’란 말은 중국에 관한 주요 저서를 남겼던 독일의 지리, 지질학자 리히트호펜(Richthofen)이 처음으로 붙여 쓴 말인데, 실크 로드를 통한 동서의 문물교역과 문화교류는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시작된 것이다. 실크 로드의 지루하게 긴 사막 길을 보고 있으면,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먼저 생각된다. 동양의 신비에 매혹된 서양 모험가들이 겪은 험난한 여행이었다. 낙타의 등에 팔 물건을 가득 얹어 사막 길을 향했던 상인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바로 그 실크 로드에서 빈 소년 합창단원들이 가서 노래한다.

세계적인 영화제작자 커트 포던의 회심작

빈 소년 합창단을 이끌고 이렇게 흥미로운 월드 뮤직 프로젝트를 실행한 사람은 세계적인 영화제작자 커트 포던(Curt Faudon)이다. 뉴욕에 거주하는 포던은 1976년부터 다큐멘터리, 상업광고, 장편 극영화 등을 제작해왔다. 뉴욕 시민이지만,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포던은 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2006년 빈 관광청은 자국 출신이며 유명한 필름 제작자인 포던에게 의뢰해 18개의 짧은 필름으로 된 영상물, 이른바 빈 컬렉션을 만들었는데, 그 필름 가운데 하나가 빈 소년 합창단에 관한 것이었다. 호평을 받았고, 장편 극영화, 다큐멘터리, 뮤직 비디오 제작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그는 곧 자신의 주요 세 가지 기법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빈 소년 합창단에 관한 정규 필름까지 계획했다. 그리고 탄생한 장엄한 결과물이 바로 이 ‘실크 로드’ DVD다.

510년의 역사, 명실 공히 세계적인 빈 소년 합창단

DVD는 우선 세계적으로 알려진 빈 소년 합창단이 그 단원의 구성원도 세계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빈소년 합창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린이 합창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것은 오스트리아 왕실이 인정하고 후원하며, 엄격한 선발기준이 있고, 엄정의 규율이 있는 오스트리아의 특별한 영재 교육기관이다. 하이든이나 슈베르트가 이 합창단의 단원이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합창단의 시작은 고전, 낭만주의 시대에서도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1498년이다. 2010년 현재 5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셈이다. 최고급 정예합창단으로 궁정생활을 하는 그들은 오스트리아 소년들뿐만, 혹은 적어도 백인 소년들뿐만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런 폐쇄성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국제적이다. 세계 각지에 연주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들은 한국에 온 것만도 10회가 넘어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하다. 그들이 갔었던 곳 중에는 지금 없어진 나라도 있

다. 단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다. 이 DVD의 전반 영상을 통해 인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본에서 온 소년, 미국에서 온 소년, 아프리카에서 온 소년도 단원이다. 빈 소년합창단으로 오게 된 계기를 말하는 장면들에서 치열이 고르지 못한 천진한 소년들이 귀엽다. 소년단원들은 여행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합창단이 1926년부터 지금까지 100여개 국가에 가서 노래를 했다는 사실도 확인해준다. 단원들은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악기는 모두 다룰 줄 안다고 말한다. 빈 소년합창단 출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음악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일러 준다. 성악가, 첼리스트, 가수, 지휘자 등의 장래희망을 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의사, 과학자, 기술자, 배우, 시계수리공, 정비사, 운동선수 등 음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업을 택하겠다는 소년들의 발언이 자유롭게 들어선다.

다양한 동서양의 비단길 레퍼토리

빈 소년 합창단은 이 영상물에서 부르는 노래의 가사는 아랍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마라티(Marathi)어, 마오리어, 핀란드어, 우르두어, 중앙아시아 투르크 계 민족(Uyghur)어,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어 등으로 다양하다. 본국의 언어로 노래하는 그들은 정말 그 민족의 후손 같다. 수록곡의 면면을 살펴본다. 우선 게르트 쉐러(Gerd Schuller)의 영화음악 '실크 로드'가 장엄하게 울리고, '무장한 사람', '조스캥 데 프레'의 4성부를 위한 모테트인 '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O Domine Jesu Christe)', 그리고 칼다라의 작품도 들을 수 있다. 또 인도의 요가에 관한 노래, 우스마노바의 'Shoch va gado(왕과 거지)'란 작품, 우즈베크의 민요이며 비의 노래인 '물의 여인', 카탈리의 전통 민요 'Haq Ali Maula(진실의 신,

알리는 안내자)', 비발디의 '글로리아', 그레고리오 성가(Veni creator spiritus), 마오리 족의 전통 노래(Tarakihi), 중국의 전통노래(Alamuhan)도 들린다. 빈 소년 합창단의 예술 감독인 게랄트 비르트(Gerald Wirth)의 타지키스탄의 노동요에 기초한 필드 홀러(Field Holler)가 이색적이며, 오드웨이(Ordway)의 작별의 노래인 '리 게(Li Ge)', 오르도스 지방 장인의 노래에 기초한 중국 전통 노래(Kou-luelltian), 핀란드 무곡 선율에 기초한 폴카(Levan Polka)도 아주 흥미롭다. 매우 익숙한 슈베르트의 노래는 연가곡 '겨울 여행'에 나오는 두 곡, '우편마차', '폭풍우 치는 아침'이다.

익숙한 노래들을 제외하면, 모두 빈 소년 합창단이 실크로드를 직접 찾아가 고대의 숨결이 남아있는 역사적 현장을 답사하고 유목민의 방랑의 생활양식을 체험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다. 그들의 노래가 나올 때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본토인들의 모습은 그 옛날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환기시킨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합창단은 약 1년간의 리허설을 했다. 그리고 레퍼토리를 선택하기 위해 베를린 훔볼트 대학, 빈 대학 등에서 전문 학자들의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스펙터클한 화면에, 블루레이의 초고화질 영상과 맑고 화려한 사운드가 압권이다! 86분, 그러니까 1시간 30분에 이르는 기다란 다큐멘터리다. CD로도 발매되었는데, 이 영상물의 사운드 트랙 음반이다. 핵심적인 레퍼토리를 역시 생생한 고음질로 담았는데, 노래만 들어도 신비스럽고 감동적인 영상이 떠오른다. (번역: 이성일)



세계의 음악 영재들이 왜 빈 소년 합창단에 모이는지...
그 해답을 이 영상에서 찾을 수 있으며,

- 빈 소년 합창단을 사랑하는 음악 애호가들...
- 음악 교육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 음악 영재 교육에 관심있는 엄마들이라면... **꼭 보아야 할 영상물**

세계 최고의 빈 소년 합창단이 내놓은
아심찬 월드 뮤직 프로젝트

빈 소년 합창단

실크 로드를 따라가며 부른 노래들

THE VIENNA BOYS' CHOIR
SILK
SONGS ALONG THE
ROAD
AND TIME

**동시
발매**

DVD **Blu-ray** **OST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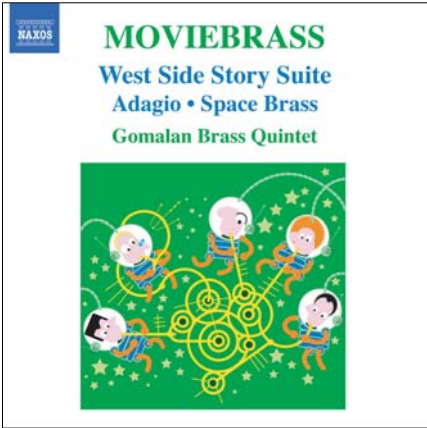
500년 전통의 빈 소년합창단,
그들의 천진난만한 무대 뒤 모습들...
[한글 자막 포함. 86분.]

실크 로드를 따라가며 부른
노래들 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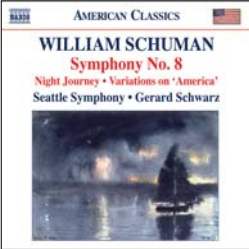


Naxos

www.naxos.com



8.572244
무비브라스
(번스타인, 존 윌리엄스, 바버, 대니 엘프만 등의 영화음악들)
고말란 브라스 퀸텟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발췌한 귀에 익은 선율들, 영화 '플래툰'으로 유명해진 바버의 아다지오, 존 윌리엄스, 제리 골드스미스, 제임스 호너 등이 만든 유명 SF 영화들의 배경음악들, 그리고 영화 '인디애나 존스', 만화 시트콤 시리즈 '십슨스',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루팡 3세'의 메인 테마들이 금관 오중주를 통해 새로운 느낌으로 재창조되었다.



8.559651
W. 슈만:
교향곡 8번, 밤여행, 아메리카변주곡
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미국을 대표하는 심포니스트 윌리엄 슈만의 교향곡 시리즈가 완결되었다. 힘으로 가득한 이 교향곡 8번은 그가 남긴 10편의 교향곡들 중에서 가장 널리 연주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2대의 하프, 피아노, 다양한 타악기군을 요구하는 방대한 편성의 작품으로, 고도의 관현악법을 통한 색채적인 효과가 특히 뛰어나다. 아이브스의 유명한 '아메리카변주곡'을 슈만이 새롭게 오케스트레이션한 버전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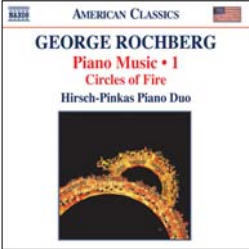
8.572154
마르케비치:
발레 '레뷔', 찬가(Hymnes) 크리스토퍼 린던-지
아른헴 심포니 오케스트라
낙소스 마르케비치 관현악시리즈의 4번째 음반에는 이 작곡가의 가장 흥미로운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레오니드 마신의 위촉으로 작곡된 수수께끼와 같은 발레 '레뷔'는 불행히도 지금까지 한 번도 공연되지 못했으며, 녹음 역시 이번이 최초다. '찬가'는 원래 전주에 이어서 노동, 봄, 그리고 무제의 3 찬가로 구성된 작품이지만, 작곡가는 사망 직전에 '죽음의 찬가'를 여기에 덧붙였다.



8.570825
파니 멘델스존-헨젤:
피아노소나타 C단조 & G단조 외
헤더 슈미트(pf)
펠릭스 멘델스존의 누나 파니는 클라라 슈만과 더불어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재능의 여류 음악가들이다. 길지 않은 생애 동안에도 무려 500편 가까운 작품을 남겼는데, 대부분 출판되지 못했다. 앞서 선보였던 가곡들과 마찬가지로 두 편의 소나타를 포함한 그의 피아노작품들 역시 아름다운 서정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장식되었다.



8.572289
퍼거슨:
피아노소나타, 5개의 바가텔, 파르티타 외
라파엘 테로니(pf) with 필리다 배니스터(alto), 바딤 피스맨(pf)
벨파스트 출신의 하워드 퍼거슨은 1999년에 사망했지만, 그의 주요 작품들은 대부분 1959년 이전에 완성된 것들이다. 바로크와 고전시대의 양식과 낭만적인 화성과 선율을 접목시켰던 그의 음악세계는 피아노 작품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파르티타는 이른바 '진보적 보수주의'라는 그의 음악스타일을 잘 보여준다. 캐슬린 페리어가 즐겨 불렀던 연가곡 '디스커버리'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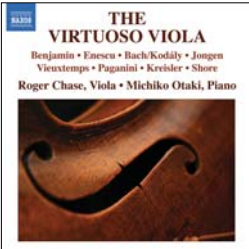
8.559631
룩버그:
2대의 피아노를 위한 불의 서클
히르슈-핀커스 피아노 듀오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조지 룩버그의 작품 '불의 서클'은 '인간 내면의 불은 거대한 천체를 창조한 우주의 불로부터 파생되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음악은 이 환상적인 이미지에 대한 완벽한 표현이다.'라는 이 작품에 대한 작곡가 자신의 설명처럼 질서와 혼돈, 대칭과 비대칭, 발전과 반복의 대비를 절묘하게 오가는 거대한 스케일의 작품이다.



8.572220
블랑카포르트:
야상곡, 포레 오마주, 엘레지아 외
미겔 비알바(pf)
마누엘 블랑카포르트 피아노작품 시리즈의 마지막 음반. 1930년에 작곡된 첫 녹음에서부터 사망 1년전인 1986년에 손자들을 위해 완성한 '작은 손을 위한 소품들', 그리고 존경심을 담은 '포레 오마주', 자신의 동료들이나 자신의 설명처럼 질서와 혼돈, 대칭과 비대칭, 발전과 반복의 대비를 절묘하게 오가는 거대한 스케일의 작품이다.



8.572105
프랑스 첼로소나타
(피에르네, 블랑제, 뎃디)
니콜라스 알트슈타트(vc)
호세 가야르도(pf)
2005년 슈투트가르트 첼로 콩쿠르, 2006년 아담 첼로 콩쿠르를 차례로 석권했던 니콜라스 알트슈타트는 알슬루 트리오의 일원으로 내한공연을 가지기도 했던 독일의 첼로 유망주다. 수많은 현대음악계의 거물들을 길러내었던 나디아 블랑제의 3개의 첼로소품, 프랑크를 연상케하는 피에르네의 우아한 작품들, 프랑스 옛 춤곡들의 영향을 담은 뎃디의 소나타를 함께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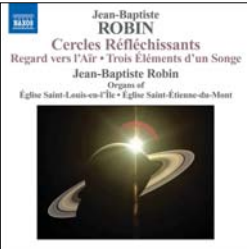
8.572293
비르투오조 비올라
(에네스쿠, 바흐, 비외탕, 파가니니, 크라이슬러 외)
로저 체이스(va)
미치코 오탁카(pf)
바이올린과 첼로와 구분되는 비올라의 독특한 매력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이 음반을 놓칠 수 없을 것이다. 코다이와 비올라를 위해 편곡한 바흐의 '반음계 환상곡', 파가니니의 비올라를 위한 소나타, 비외탕의 우아한 두 개의 비올라 소품들, 아서 벤저민의 '라벨의 무덤', 크라이슬러의 '전주곡과 알레그로', 국악의 기교와 화려한 선율이 조화된 에네스쿠의 '콘서트 피스' 등등 비올라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8.572247
소비에트 러시아 비올라음악
(크류코프, 바실렌코, 크레인 외)
이고르 페도토프(va)
레오니드 베호카이저, 개리 할몬드(pf)
비올라 소나타 자체도 드물지만, 크류코프, 바실렌코, 프리드, 크레인, 보그다노프-베레조프스키 등의 러시아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은 음반이다. 이들은 스코랴인의 영향을 받은 일군의 러시아인 서정주의 작곡가들로 비올라의 풍부한 톤을 적극 활용한 감성적인 음악 스타일을 보여준다.



8.571275
프로코피예프:
피아노소나타 2,7번
쇼팽:
마주르카 외
이딜 비렛(pf)
터키의 국보급 피아니스트 이딜 비렛은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1972년부터 미국의 피나디(아틀라틱 레코드)의 서브레이블)를 통해 다수의 LP를 발매하기 시작했다. 본 음반은 1977년 발매되었던 LP를 최초로 CD에 옮긴 것으로, 이 연주자의 뛰어난 기교를 관찰할 수 있는 작품들로 선택되었다. 프로코피예프의 소나타 2번과 7번, 스코랴인의 소나타 10번, 그리고 쇼팽의 마주르카들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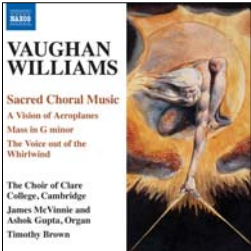
8.570892
로뱅:
오르간 작품집
장 밥티스트 로뱅(org)
장 밥티스트 로뱅(1976년생)은 열정과 힘찬 에너지, 그리고 화려한 색채감의 작품세계를 추구하는 프랑스의 젊은 작곡가다. 작곡가가 직접 오르간 연주를 맡은 이 음반은 작품의 성격에 맞춰서 파리 생루이제일 교회와 파리 생테티엔뒤휴동 교회의 오르간을 번갈아 녹음에 활용하였다. 오르간의 만화경과도 같은 화려한 소리의 스펙트럼을 극한치까지 활용한 이 작곡가의 풍부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8.572224
헨델:
알렉산더의 향연(또는 음악의 힘)
웅에 칸토라이
요아힘 카를로스 마르티니
프랑크푸르트 바로크 오케스트라
요아힘 카를로스 마르티니가 진행중인 헨델 오라토리오 시리즈의 최신보. 영혼을 흔드는 음악의 힘과 사랑, 전쟁, 복수의 이야기를 담은 존 드라이덴의 서사시 '알렉산더의 축연'에 곡을 붙인 헨델의 이 오라토리오는 1736년 초연 당시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페르시아 정복에 대한 알렉산더 대왕의 화려한 축연의 소재로 삼은 이 작품은 음악의 수호성인인 '세실리아'를 높이 찬양하면서 최고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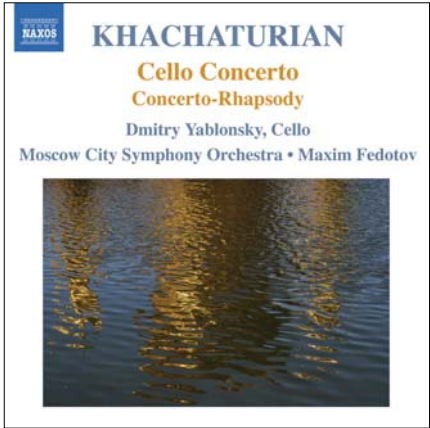
8.570545
포레:
첼로소나타 1,2번, 파반느, 시실리아느, 꿈을 따라서 외
이나 에스테르 요스트 벤 사순(vc)
알란 스탠필드(pf)
포레가 완성한 두 첼로소나타는 작곡가의 천부적인 선율감각과 우아한 서정성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작품들이다. 1차대전 중에 완성한 1번은 유장한 2악장과 현란한 3악장의 대비가 돋보이는 작품이며, 2번의 경우는 자신의 작품 '장례송가'를 편곡한 2악장이 인상적이다. 인기 첼로소품인 '엘레지'와 유명한 가곡 '꿈꾸고 난 뒤'의 첼로편곡, 극부수음악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중의 '시실리아느' 등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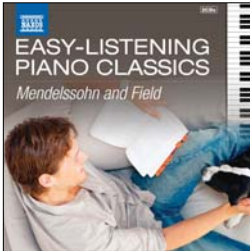
8,572465
본 윌리엄스:
미사 G단조 외 종교합창곡들
티모시 브라운
캠브리지 클레어 칼리지 합창단
본 윌리엄스의 가장 유명한 종교 합창곡인 미사 G단조는 후기 르네상스의 우수했던 영국 폴리포니 음악전통을 현대적으로 승화시켰던 빼어난 걸작이다. 오르간과 혼성합창을 위한 조절기교적인 모테트 '비행기에서의 비전', 번연의 '천로역정'에 기초한 'Valiant-for-truth', 오르간과 혼성합창을 위한 장엄한 앤섬인 '회오리바람으로부터의 목소리' 등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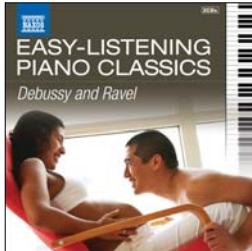
8,578073-74
이지 리스닝 피아노 클래식스 (베토벤)
소나타 8번 '비창' 2악장, 소나타 14번 '월광' 1,2악장, 소나타 1번 2악장, 소나타 25번 2악장, 소나타 9번 2악장, 소나타 33번, 소나타 11번 2악장, 소나타 10번 2악장, 소나타 17번 '템페스트' 2악장, 소나타 15번 '전원', 론도 G장조, 론도 C장조, 7개의 랠를러, 엘리제를 위하여, 바가텔 Op.33-1,3,4,6, Op.119-1,2,3,4,9, Op.126-5, 미뉴에트 C장조, 미뉴에트 Eb장조, '라 몰리나라'에 의한 6개의 변주곡 등 베토벤의 가장 듣기 편한 피아노 작품들을 망라한 음반.



8,570463
하차투리안:
첼로협주곡, 콘체르토 랩소디
드미트리 아블론스키(vc)
막심 페도토프
모스크바 시티 심포니
아람 하차투리안은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두 편의 작품을 남겼다. 첼로 협주곡은 2차 대전 종전 직후 가장 혹독한 문화 검열이 있던 시절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작곡가의 후기 작품들을 지향하는 진취적인 음악서법을 보여준다. 콘체르토 랩소디는 로스트로포비치에게 헌정된 작품으로, 독주자와 오케스트라 사이의 유기적인 조화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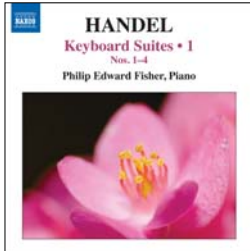
8,578079-80
이지 리스닝 피아노 클래식스 (멘델스존 & 필드)
멘델스존의 무언가 중 1,4,6,7,9,13,16,19,23,25,30,31,32,34,36,37,40,42,45,46,47번, 멘델스존의 프렐류드와 푸가 Op.35 중 프렐류드 2,4번, 뱃노래, 피아노소나타 1번 중 1악장, 판타지 Op.16 중 3번, 존 필드의 야상곡 중 1,3,4,5,6,8,9, 11,12,18번 등 멘델스존과 필드의 가장 듣기 편한 피아노 작품들을 망라한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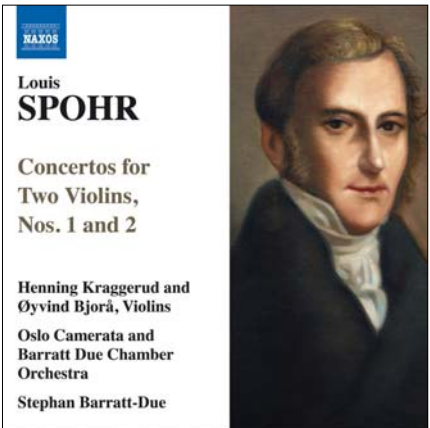
8,578077-78
이지 리스닝 피아노 클래식스 (드뷔시 & 라벨)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 전주곡 1권의 1,2,5,8번, 2권의 8,12번, 베르가마스크모음곡 중 달빛과 민스트렐, 레베리, 판화 중 1,2번, 어린이코너 중 2,5,6번, 고대의 에피그라피 중 1,4번, 영상 1권 중 1,2번, 렌트보다 더 느리게, 파주 앨범, 라벨의 죽은 황녀를 위한 파반, 쿠프랭의 무덤 중 미뉴에트와 포를랑, 소나티네 중 1,2악장, 사브리예 풍으로, 보로딘 풍으로, 미뉴에트 안티크, 유희, 하이든 미뉴에트, 전주곡, 거울 중 5악장 등 드뷔시와 라벨의 가장 듣기 편한 피아노작품들을 망라한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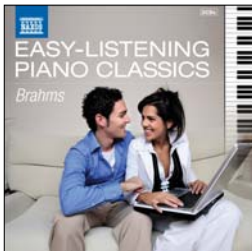
8,578081-82
이지 리스닝 피아노 클래식스 (로맨틱 익스프레스션)
엘가의 소나티나, 꿈의 어린이들, 5월, 전원곡, 카리시마, 로즈마리, 시벨리우스의 13개의 소품, 즉흥곡 5,6번, 피아노소품집 '꽃', 개성적인 인상 3번, 바가텔 Op.34-1,2,4,5, 그라나도스의 감상적인 왈츠 2,6,7번, 파스토랄, 미뉴에트, 집시왈츠, 시적인 왈츠, '유령',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스, 훔멜의 바가텔, 루빈시타인의 야상곡, 큐이의 전주곡 16,17번 등 근대 작곡가들의 가장 듣기 편한 피아노작품들을 망라한 음반.



8,572197
헨델:
건반 모음곡 1-4번
필립 에드워드 피셔(pf)
헨델의 건반 모음곡들은 작곡가의 방대한 작품 목록 속에서 그리 눈에 띄는 작품들이 아니지만, 1720년에 작곡된 8개의 모음곡은 이 분야의 진정한 걸작으로 손꼽힌다. 이 음반에는 전반부의 4작품을 수록하였는데, 전형적인 프랑스 양식의 춤곡 모음곡 속에 이탈리아 풍의 감미로운 에어와 토카타 그리고 푸가 등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놓은 이 작곡가의 다재다능함을 엿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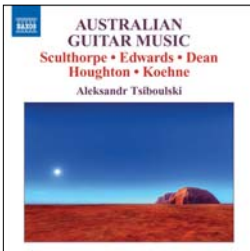
8,570840
슈포어:
콘체르탄테 1,2번, 바이올린 듀엣
헤닝 크라거루트, 외빈트 요르(vn)
슈테판 바라트 두에
오슬로 카메라타
슈포어의 콘체르탄테 1,2번은 바로크 시대의 콘체르토 그로소의 전통을 재현한 작품으로, 두 대의 독주악기들이 주고받는 불임성 좋은 인터플레이와 빛나는 솔로 패시지들이 인상적인 작품들이다. 형식은 복고풍이지만 그 이면의 음악적 분위기는 베를리오즈나 차이코프스키와 같은 로맨틱 작곡가들의 섬세한 감성을 예비하는 듯 하다. 역시 두 바이올린의 생기발랄한 대화를 담은 듀엣 Op.3-3을 함께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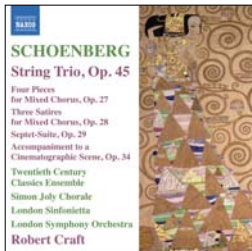
8,578075-76
이지 리스닝 피아노 클래식스 (브람스)
인터메조 Op.117-1,2, 헝가리춤곡 3,5,6번, 피아노소품 Op.118-2,5, 왈츠 Op.39-1,2,3,5,6,8,9,10,11,12,15,16, 피아노소품 Op.76-2,3,6,7, 판타지 Op.116-2,4,5,6, 피아노소품 Op.119-1,2,3, 사랑의 노래 왈츠 Op.52a-1,4,5,6,8,10,13,14, 15,17, 하이든변주곡 발췌, 피아노소나타 3번 2악장 등 브람스의 가장 듣기 편한 피아노작품들을 망라한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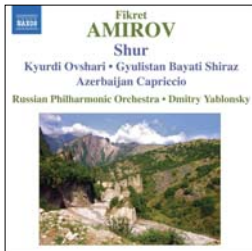
8,578083-84
이지 리스닝 피아노 클래식스 (슈만)
아라베스크 Op.18, 어린이를 위한 앨범 Op.66-1-5,6,8, 10,14,15,20-22,24,26,28,30, 35, 판타지슈튀크 중 'Des Abends'와 'Warum?', 아베크 변주곡, 다비트동맹춤 발췌, 어린이정경 중 7,8,10,12번, 피아노소나타 1번 2악장, 피아노소나타 2번 2악장, 카니발 발췌, 판타지 Op.17 중 3악장, 심포니 에튀드 발췌, 숲의 정경 발췌, 로만체 Op.28-2, Bunte Blatter 중 1,3번 등 슈만의 가장 듣기 편한 피아노작품들을 망라한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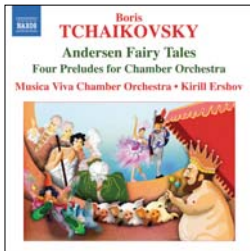
8,570949
호주의 기타음악들
(에드워드스, 허프턴, 스컬토프, 코엔, 딘)
알렉산드르 치보울스키(guitar)
호주를 대표하는 현존 작곡가들의 다양한 기타 작품들을 수록한 음반. 호주 북부의 풍광을 담은 피터 스컬토프의 '카카두 국립공원에서', 고대 그리스신화에서 영감을 얻은 필립 허프턴의 '스텔레', 시드니 항구를 소재로 한 로스 에드워드스의 블랙워를 카프리스, 브렛 딘의 '고아의 그림에 의한 3개의 카프리스' 등의 개성만점의 작품들을 2006년 도쿄 국제 기타 콩쿠르 우승자인 알렉산드르 치보울스키가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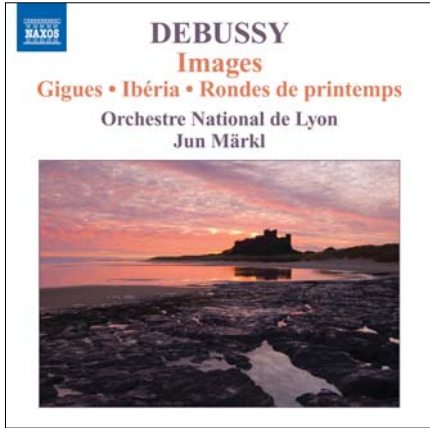
8,557529
쇤베르크:
현악트리오, 7중주 모음곡, 영화를 위한 반주 외
용재오닐 외/ 로버트 크래프트/ 런던 심포니, 사이먼 줄리 합창단 외
다양한 장르에 걸친 쇤베르크의 음악세계를 맛볼 수 있는 음반. 혼성합창을 위한 작품들인 4개의 소품과 3개의 풍자를 사이먼 줄리 코랄이 노래하였고, 피아노 사중주에 2대의 클라리넷과 1대의 베이스 클라리넷을 추가한 독특한 편성의 작품인 7중주 모음곡, 작곡가의 주요 실내악 걸작인 현악삼중주, 가공의 영화를 위한 관현악곡인 '영화장면을 위한 반주'를 함께 수록하였다. 현악삼중주에는 용재오닐이 참여하였다.



8,572170
아미로프:
슈르, 큐르디 오프사리, 아제르바이잔 카프리치오 외
드미트리 아블론스키
러시아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피크레트 아미로프는 아제르바이잔이 배출한 세계적인 작곡가다. 그는 노래와 춤곡이 교차하는 즉흥적인 성격의 이 나라 전통음악 장르인 무감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켰다. 'Shur'와 'kyurdi Ovshari', 그리고 'Gyulistan Bayati Shirz'는 그가 완성한 대표적인 관현악 무감들로 풍부한 표정의 솔로와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결합된 수작이며, 역시 전통음악적인 색채가 강한 '아제르바이잔 카프리스'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2400
보리스 차이코프스키:
안데르센 동화를 위한 극부수음악들
키릴 에르소프
무지카 비바 챔버 오케스트라
쇼스타코비치의 애제자였던 보리스 차이코프스키는 로스트로포비치를 비롯한 러시아 음악인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던 특출한 재능의 작곡가였다. 그는 안데르센의 동화극을 위한 자기자한 극부수음악들을 다수 남겼다. '돼지치기 왕자'와 '행운의 장화'를 위한 두 세트의 모음곡과 '별거숭이 임금님', '장난감 병정', '감침 바늘', '달팽이와 장미나무' 등의 동화를 위한 음악들을 편집한 안데르센 동화 모음곡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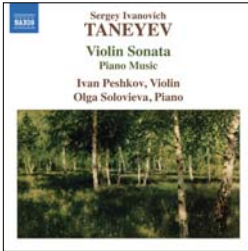
8.572296
드뷔시:
영상, 렌트보다 느리게, 사라방드 외
윤 매르클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윤 매르클의 드뷔시 관현악 시리즈의 3번째 음반. 드뷔시는 '영상'(images)이라는 타이틀 아래 3편의 연작을 완성하였는데, 피아노독주곡인 1,2편과 달리 3편은 관현악곡으로 완성되었다. 스페인 풍의 중간 3악장 전후로 각각 영국과 프랑스의 전통춤곡이 배치된 작품이다. 라벨이 관현악으로 편곡한 춤곡과 사라방드, 그리고 작곡가 자신이 편곡한 '렌트보다 느리게'와 '유행가에 의한 행진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199
클레츠키:
피아노협주곡, 3개의 전주곡, 판타지 외
조셉 바노베츠(pf)
토마스 잔데를링
러시아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푸르트벵글러와 토스카니니의 인정을 받았던 당대의 명 지휘자 파울 클레츠키는 작곡가로도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호방한 스케일과 로맨틱한 정서로 가득 채워진 피아노협주곡은 관현악총보가 소실되어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초고를 기초로 존 노린이 새롭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하였다. 4악장 구성의 소나타를 단악장으로 압축한 형태의 대작 피아노독주곡인 판타지, 기교적인 소품인 3개의 전주곡 등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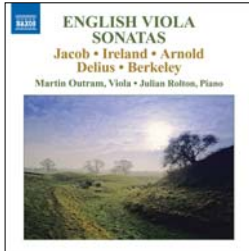
8.570991
요아힘:
바이올린협주곡, 단악장 협주곡
김수연(vn)
미카엘 할라스
바이마르 슈타츠카펠레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비르투오조였던 요아힘은 브람스, 슈만, 멘델스존 등에게 창조적 영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작곡에 나서기도 했다. 단악장 협주곡인 Op.3은 고도의 기교적인 패시지들을 통해 20대의 패기를 드러낸 작품이며, 전통적인 3악장 체제의 Op.11은 진시 풍의 피날레를 비롯하여 헝가리 적인 색채로 장식된 곡이다. 2006년 하노버 콩쿠르 우승자인 우리 연주자 김수연이 독주를 맡았다.



8.557804
타네예프:
바이올린소나타, 피아노소품들
이반 페슈코프(vn)
올가 솔로비예바(pf)
러시아5인조의 민속주의 정신과 차이코프스키의 서구적인 로맨틱시즘을 함께 물려받았던 타네예프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음에도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그리 많이 남기지 않았다. 차이코프스키 추모작품인 주제와 변주를 비롯하여 5개의 스케르초, 전주곡과 푸가, 엘레지 등의 사랑스런 피아노소품들과 더불어 '중간 난이도'라는 독특한 부제가 붙은 바이올린소나타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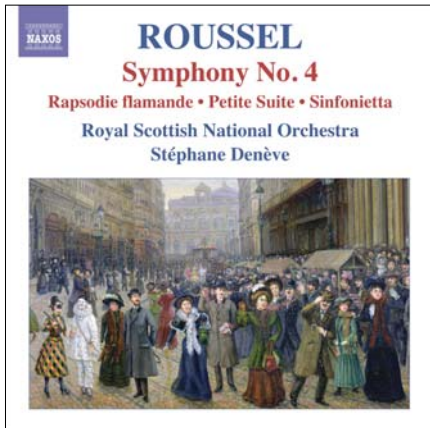
8.570977
이자이: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무반주 첼로 소나타 외
헨닝 크라게루트, 보르드 몬센(vn)
라스 안더스 톨테르(va)
올레 에이리크 리(vc)
벨기에의 바이올린 비르투오조 이자이는 연주자로서의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6개의 무반주 바이올린소나타와 같은 뛰어난 바이올린 걸작들을 다수 남겼다. 신보에 수록된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현악트리오 '르 쉬메이'는 작곡가의 생전에 출판되지 못한 유작들로 자필악보 상태로 전해져오는 작품들이다. 무반주첼로를 위한 소나타 Op.280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208
영국 비올라 소나타
(제이콥, 아일랜드, 아놀드, 델리 어스, 버클리)
마틴 오트렘(va)
줄리언 톨튼(pf)
레녹스 버클리, 말콤 아놀드, 고든 제이콥 등의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비올라를 위한 소나타들과 더불어 존 아일랜즈와 프레데릭 델리어스의 첼로소나타들을 비올라를 위해 편곡하여 수록하였다. 바이올린과 첼로에 비해 독주악기로 홀대받았던 비올라지만, 이 작품들을 통해 발산되는 이 악기 특유의 풍부한 중저음의 매력이 각별하다.



8.570605
마 시콩:
바이올린소나타 3번, 가오산모음곡, 론도 2-4번, 추수춤 외
쿠 샤오메이(vn)
루 냥(pf)
마시콩(1912-87)은 현대 중국음악계의 정체성을 확립한 대표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음악교사로 기억되는 이름이다. 그는 중국 각지의 다양한 민속적인 소재들을 서양음악의 틀 속에 접목시켰다. '고산조곡'과 '추수무곡', '춘천무곡' 등은 중국 전통음악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진 작품과 더불어 바이올린 소나타 3번, 3편의 론도 등의 그의 대표적인 바이올린 작품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8.572135
루셀:
교향곡 4번, 플랑드르 랩소디, 신포니에타, 작은 모음곡 외
스테팡 드네브
로알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루셀의 교향곡 4번은 빼어난 걸작으로 호평을 받은 3번의 그림자에 가려진 비운의 작품이지만, 정교하게 다듬어진 느린 악장의 아름다움이 각별하다. 신랄한 분위기의 신포니에타, 벨기에 지역의 대중가요들을 삽입한 랩소디 플랑망드, 회화풍의 작은 모음곡, 작곡가 특유의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이 빛나는 작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등의 다채로운 관현악작품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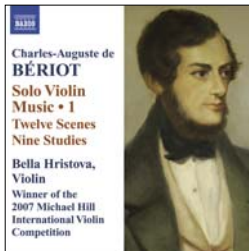
8.572399
이탈리아 클라리넷 모음곡
(롱고, 부조니, 스콘트리노, 프루가타)
세르조 보시(cl)
리카르도 바르톨리(pf)
19세기 중반에 태어난 4명의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뛰어난 모음곡들을 담은 음반. 고전형식 속에 로맨틱한 감성을 담은 롱고의 작품, 드뷔시의 인상주의를 연상케 하는 스콘트리노의 작품, 화려한 기교의 악장을 가운데 서정적인 엘레지아가 돋보이는 부조니의 작품, 클라리넷의 감성적인 매력을 멋지게 드러낸 프루가타의 작품 등을 수록.



8.570333
바인베르크:
첼로소나타 1,2번, 무반주 첼로소나타 1,3번
드미트리 야블론스키(vc)
류 신니(pf)
미에치스와브 바인베르크는 폴란드에서 태어나 민스크, 타슈켄트 등을 떠돌다 모스크바에 정착했던 작곡가다. 쇼스타코비치의 칭송을 받았으며, 그와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다. 로스트로포비치에게 헌정된 무반주 첼로소나타 1,3번은 바흐의 위대한 작품을 계승하는 걸작으로 첼로의 풍부한 표현 가능성을 적극 활용하였다. 피아노반주의 첼로소나타들 역시 구조선 여러 첼리스트들의 연주 레퍼토리로 애용되었던 작품들이다.



8.572213
힌데미트:
클라리넷사중주, 클라리넷소나타, 클라리넷오중주 외
스펙트럼 콘서트 베를린
이 음반에 수록된 실내악작품들은 힌데미트의 음악이 얼마나 다양한 감성들을 충족시켜주는지를 보여준다. 열정과 깊은 감성, 그리고 풍부한 유머가 차례로 교차해나간다. 특히 클라리넷을 위한 3개의 작품들은 서정적인 선율과 격렬한 패시지를 통해 이관악기 특유의 풍부한 표현력을 폭넓게 탐구해나간다. 제목만큼이나 단순명료한 작품인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3개의 쉬운 소품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267
베리오: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집
벨라 흐리스토포바(vn)
샤를 오귀스트 드 베리오의 낭만시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린 비르투오조 겸 작곡가였다. 본 음반에는 그가 남긴 무반주 바이올린작품들인 12개의 장면과 카프리스, 9개의 연습곡, 전주곡과 즉흥곡이 수록되었다. 2007년 마이클 힐 콩쿠르 우승자인 벨라 흐리스토포바가 화려한 기교와 감미로운 서정을 함께 머금은 이 작곡가의 특징을 훌륭히 표현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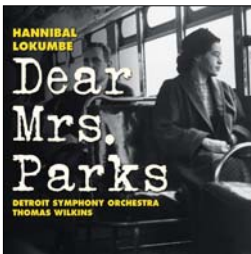
8.570956
몽푸:
피아노작품집 Vol.5
호르디 마스, 마리아 루이스 마갈다(pf)
마르크 올리우(vn)
호안 안토니 피치(vc)
본 음반에는 몽푸가 20년간의 파리 체류를 끝내고 바르셀로나로 돌아온 직후인 1944년부터 1955년 사이에 완성된 피아노작품들이 수록되었다. 이들은 작곡가의 생전에 출판되지 못했던 것들로 이 음반을 통해 최초로 녹음된 것들이다. 발레 '돈 페를림플린'의 오리지널 피아노버전, 피아노를 위한 12개의 짧은 에피그램들을 모은 '발레', 프랑스 민요 '달빛 드리워진'에 의한 글로리아와 판타지 등의 희귀작들을 수록하였다.



8.571266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6번, 12번, 15번 '전원'
이딜 비렛(pf)
이딜 비렛은 포르테시모를 절제하는 가운데서도 큰 윤곽선을 그려나간다. 피아노 톤은 화려하며, 우아하고 심미적인 소노리티 역시 매력적이다. "누구나 이 연주들을 듣고 나면 비렛의 스승이 빌헬름 켐프였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라모폰-



8.571276
뉴라인 피아노
(부쿠레슈티에프, 카스틸리오니, 브루워, 미마로글루)
이딜 비렛(pf)
이딜 비렛이 미국에 데뷔한 직후 피나다 레코드를 통해 남겼던 일련의 LP 녹음들이 비렛 자신의 레이블을 통해 최초로 CD로 재발매 중이다. 가브리엘리에서 시마노프스키에 이르는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을 인용한 레오 브루워의 소나타, 일렉트로닉 테이프와 육성 낭독이 덧붙은 미마로글루의 '세션', 우연성음악적인 요소가 내재된 부쿠레슈티에프의 아키텔 IV 등의 아방가르드 성향의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8.559668
로쿰베:
디어 미세스 팩스
여러 가수들/ 랙컴 심포니 콰이어/ 토마스 윌킨스/ 디트로이트 심포니
1955년 백인에게 버스 자리 양보를 거부함으로써 흑인 인권운동의 불시를 지냈던 인권운동가 로사 팩스를 기념하는 한니발 로쿰베의 대편성 오라토리오. 이 작품의 초연 몇 달 뒤 팩스여사는 92세로 세상을 떠났다. 블루스, 재즈, 흑인영가 등의 아프로아메리칸의 음악적 전통에 기반을 둔 로쿰베의 독특한 음악스타일이 잘 드러난 대작으로 2005년 초연 이후 열렬한 호평과 함께 수많은 영예를 안겨주었던 문제작이다.



8.559607
와크나:
미사 브레비스 외 합창음악들
마이클 블로스(org)
노엘 에디슨
엘로라 페스티벌 싱어즈
몬트리올 맥길대학의 작곡교수이자 워싱턴 케네디센터의 와싱턴 코러스의 음악감독인 줄리언 와크너는 합창단원과 대학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장기간 활동했던 자신의 이력을 통해 합창음악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작곡가다. 미사브레비스, '주의 성전을 보라', '아론의 축도' 등의 종교합창곡들과 더불어 6편의 릴케의 노래들, 커밍스의 시에 곡을 붙인 'Sometimes I feel alive' 등의 대표작들을 담았다.



8.572317
뤼티:
레퀴엠
올리비아 로빈슨(sop)
바호 콰이어/ 데이비드 힐/ 서던 신포니아
스위스 작곡가 카를 뤼티의 레퀴엠은 여러모로 포레의 걸작을 연상케 한다. '진노의 날'이 생략된 대신 명상적인 '천국에서'로 곡이 마무리되는 외형은 물론이거니와, 소프라노와 바리톤 독창자와 하프와 오르간이 첨가된 현악합주의 간결한 편성, 그리고 전곡에 걸쳐서 감도는 평온한 분위기도 닮아있다. 더불어 이 작곡가가 영국 유학중에 체득했던 영국 합창음악의 풍부한 전통 또한 이 작품 속에 함께 드러난다.



8.572121
하이든:
스타바트 마테르
트리너티 콰이어
J 오웬 버딕
레벨 바르크 오케스트라
스타바트 마테르는 하이든이 에스테르하지 궁정의 카펠마이스터로 취임한 이후 최초로 작곡한 종교합창곡의 하나다. 아들의 십자형을 지켜보는 성모의 단장의 비감이 음화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적 테크닉을 통해 표현된 걸작으로, 1768년 빈에서의 공개연주회 이후 큰 인기를 모으며 작곡가의 생전에도 자주 연주되었다. 전집으로 먼저 공개되었던 뉴욕 트리너티 교회 합창단의 하이든 미사 시리즈의 첫 개별 출시작.



8.572277
안데르센: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살롱 음악들
카일 자포(fl)
매튜 마초니(pf)
덴마크 출신의 플루트 연주자인 요아힘 안데르센은 19세기 후반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베를린 필하모닉의 창립 멤버로도 맹활약했던 인물이다. 돈조반니 선율에 기초한 판타지, 12개의 연주회용 소품, 에튀드와 같은 창작곡들 외에도 그가 편곡한 이시도르 맨스트렐의 '스웨덴 폴카와 가곡', 자신의 카덴차를 삽입한 체사레 치아르디의 '러시아 카니발' 등의 매력적인 살롱 풍 플루트 소품들로 채워진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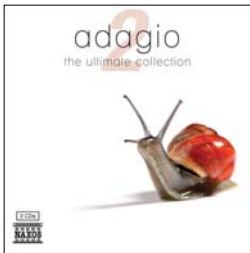
8.572322
슈베르트:
리트 에디션 Vol.35
시빌라 루벤스(sop)
데틀레프 로트(br)
올리히 아이젠로어(pf) 외
낙소스의 슈베르트 리트 에디션을 마감하는 35번째 음반. 그의 미완성 가곡 단편들과 피아노 반주 이외의 다른 악기 반주에 의한 대체 버전 등과 같은 희귀 작품 등이 수록되었다. 미완성 단편들 중 다섯 편은 페터 라인하르트 판 호릭스가 완결한 형태로 수록하였고, 바이올린과 하프반주의 '실러의 명명축일을 위하여', 현악삼중주 반주의 '독일군의 승리에 부처' 등의 색다른 대체버전 등을 만날 수 있다.



8.660245-47 [3CDs]
마이어베어:
이집트의 십자군
파트라치아 초피(sop)
마르코 빈코(bass) 외
엠마누엘 비몽
이집트의 십자군'은 마이어베어가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던 시절의 작품으로, 그는 이 작품의 대성공을 발판으로 파리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었다. 본 음반은 2007년 1월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현존 최고의 벨칸토 소프라노 파트리차 초피, 실력파 베이스 마르코 빈코 미국의 소프라니스트 마이클 마니아치 등의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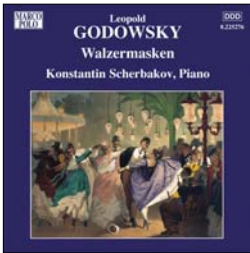
8.570505
그레이트 무비 테마
칼 데이비스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
레이디스~잃어버린 성채를 찾아서, 스파이더맨, 신들러의 리스트, 글레디에이터, 반지의 제왕~두 개의 탑, 불의 전차, 타이타닉, 포레스트 검프, 늑대와의 춤을, 해리 포터 등의 인기 영화들을 아름답게 장식했던 존 윌리엄스, 대니 엘프먼, 한스 짐머, 하워드 쇼어, 반젤리스, 제임스 호너, 존 배리 등의 귀에 익은 선율들을 카를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의 화려한 연주로 수록한 음반.



8.578062-63 [2CDs]
아다지오 2
The Ultimate Collection
바흐의 삼중협주곡과 브란덴부르크협주곡 1,6번, 하이든의 피아노협주곡 4,9번, 교향곡 26번 '애가', 알비노니의 오보에협주곡 Op.7-12, 보케리니의 첼로협주곡 D장조,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2, 15번, 피아노협주곡 7번, 교향곡 36번 '윈초', 크라우스의 교향곡 E단조, 호프만의 오보에협주곡 C장조, 로드의 바이올린협주곡 10번, 슈타미츠의 클라리넷협주곡 7번, 고다르의 바이올린협주곡 2번, 생조르주의 바이올린협주곡 Op.3-1, 로제티의 바순협주곡 등의 느린 악장들을 갈무리한 휴식 음악 특선.

Marco Polo
www.naxos.com

OUR Recordings
www.our-recordings.com



8.225276
고도프스카:
피아노작품집 Vol.10 (Walzermasken)
콘스탄틴 셰르바코프(pf)
고도프스키의 '왈츠 가면무도회'는 쇼팽, 슈만, 리스트, 드뷔시 등의 선배 피아니스트-작곡가들과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에 대한 오마주인 24개의 판타지를 엮은 작품집으로, 각 작곡가들의 음악스타일을 차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비르투오시티를 절묘하게 접목해 놓았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테마에 의한 심포닉 메타모르포즈'은 왈츠 '예술가의 생애'의 선율을 기교적으로 패러프레이즈한 대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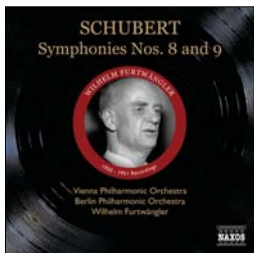


6.220602
멜로디스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율들)
첸 이(vn)
라스 한니발(guitar)
바이올린과 기타로 연주하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들.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 사티의 짐노페디 1-3번,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과 아름다운 로즈마리, 글록의 정령들의 춤,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헨델의 라르고와 같은 애청소품들은 물론, 마리아 테레사의 시실리안느, 말로의 안단테와 같은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작품들이 여러분들의 휴식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Naxos Historical & Nostalg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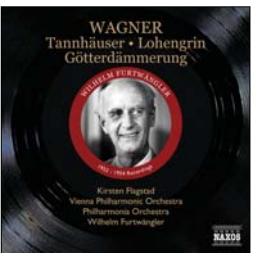
www.nax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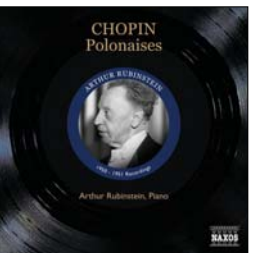
8.111344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미완성', 9번 '그레이트'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빈 필(8번), 베를린 필(9번)
슈베르트의 두 인기교향곡들에 대한 푸르트벵글러의 레코딩 중 가장 뛰어난 음원들을 커풀링하였다. 미완성교향곡은 1950년 1월 무지크페라인에서 빈 필을 지휘한 음원이며, '그레이트'는 1951년 11/12월 베를린의 예수그리스도 교회에서 베를린 필을 지휘한 것이다. 위낙에 유명한 음원들인 만큼 여러 복각으로 선보인 바 있지만, 최고의 복각 전문가 마크 오버트 손의 우수한 손을 거친 이 음반의 가치는 각별하다.



8.112052
모차르트:
피아노소나타 15번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3번 외
아르투르 베네데티 미켈란젤리(pf)
미켈란젤리의 초기 레코딩을 담은 낙소스 히스토리컬의 두번째 음반으로 이 위대한 거장이 19세 때부터 31세 사이에 완성한 여러 음원들을 수록하였다. 1951년 녹음인 모차르트의 소나타 15번, 1941년 녹음인 베토벤의 소나타 3번 외에도 쇼팽의 스펀크초 2번, 자장가, 마주르카 25, 47번, 왈츠 9번 등을 수록하였다.



8.111348
바그너:
탄호이저, 로엔그린, 신들의 황혼 발취
키르스텐 플라그스타트(sop)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빈 필, 필하모니아
푸르트벵글러의 바그너 관현악 하이라이트 녹음 중 가장 후대의 것들을 모은 음반. 탄호이저 서곡은 1952년 12월, 로엔그린 1막 전주곡과 신들의 황혼 중 지크프리트의 라인여행과 장송음악은 1954년 3월의 녹음으로 모두 빈 필을 지휘한 것이며, 전설적인 바그너 소프라노 플라그스타트를 반주한 브뤼헨데의 화생 장면은 1952년 필하모니아를 지휘한 것이다.



8.111346
쇼팽:
폴로네이즈
아르투르 루빈시타인(pf)
루빈시타인은 쇼팽의 폴로네이즈 1-7번을 모두 세차례 녹음하였다. 그중 가장 뛰어난 것이 그의 레코딩 캐리어 중반인 1950-1년 RCA를 통해 남긴 기록들인 본 연주들이다. 루빈시타인은 폴란드 고유의 이 춤곡양식에 내재된 품격과 힘 그리고 당당한 리듬을 제대로 표현해내었던 소수의 피아니스트들 중 한 사람이었다. 동일한 기간의 녹음인 안단테 스피나토와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리안테가 함께 수록되었다.



8.112034-35 [2CDs]
R. 슈트라우스: 카프리치오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sop), 니콜라이 겐타(te) 외
볼프강 자발리시/ 필하모니아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는 20세기 중반기 가장 탁월했던 R 슈트라우스 히로인이었다. 1957-8년 남편 월터 레게의 지휘 아래 행해졌던 본 녹음은 그가 남긴 가장 뛰어난 R 슈트라우스 오페라 음반의 하나다. 니콜라이 겐타, 에버하르트 베호터,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 한스 호터, 크리스타 루드비히라는 올스타급 캐스팅과 당시 제2의 카라얀으로 각광받았던 볼프강 자발리시의 명쾌한 지휘가 함께하였다.



8.120891
LOVE, Marilyn
마릴린 몬로의 노래들
20세기의 영원한 섹시심볼 마릴린 몬로의 축축한 음성으로 노래한 대표 히트곡들을 모은 음반. 자신이 주연한 영화들인 '나이아가라',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돌아오지 않는 강', '뜨거운 것이 좋아', '쇼비지니스 같은 비즈니스는 없네' 등의 수록곡들인 'Diamonds are a girl's best friend', 'bye bye baby', 'some like it hot', 'Kiss', 'The River of no return' 등의 추억의 노래들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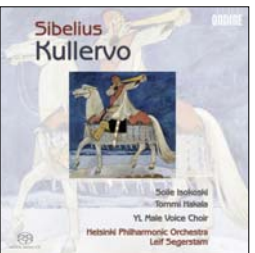
Ondine

www.ondine.net

ONDINE
—
복구의 청량함을
담은 레이블
Ondine이 이제
아울로스를 통해
국내에
소개됩니다



ODE10752Q [4 for 3]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집, 바이올린협주곡, 핀란드야
페카 쿠시스토(vn)
레이프 세게르스탐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Classicstoday 9/9
레이프 세게르스탐은 과거 덴마크 방송교향악단과도 시벨리우스 교향곡전집을 완성하였지만, 핀란드 최고의 악단인 헬싱키 필하모닉의 두 번째 전집은 이전의 성과를 완전히 압도한다. 작곡가의 일곱 교향곡과 핀란드의 신성 페카 쿠시스토가 협연한 바이올린협주곡, 그리고 핀란드야를 4장의 CD에 나누어 담은 이 전집은 연주와 녹음 양면 모두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ODE11225 [Hybrid-SACD]
시벨리우스:
쿨레르보
소일레 이스코스키, 토미 하칼라
레이프 세게르스탐
헬싱키 필하모닉
Diapason D'or, Classicstoday 10/10, Klassik Heute 10
대편성 관현악과 두 명의 독창자, 그리고 남성합창을 위한 드라마틱한 교향시 '쿨레르보'는 자국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청년 시벨리우스의 뜨거운 열정을 담아낸 역작이다. 핀란드의 세계적 프리마돈나 소일레 이스코스키와 바리톤 유망주 토미 하칼라, 그리고 답수룩한 턱수염이 인상적인 지휘자 레이프 세게르스탐의 이 녹음은 발매 직후 동국 최고의 명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ODE11465 [Hybrid-SACD]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4번, 5번 '황제'
올리 무스토넨(pf, cond)
타피올라 신포니에타
Classicstoday 9/9
피아니스트에 이어 지휘자로도 맹활약 중인 올리 무스토넨의 최신보. 베토벤의 마지막 두 협주곡을 자신이 이끄는 타피올라 신포니에타와 함께 협연하였다. 아담한 규모의 악단으로 실내악적인 정치함을 강조하고 무스토넨의 개성넘치는 리듬 감각이 강한 인상적을 남기는 이 음반은 수많은 명연들 속에서도 자신만의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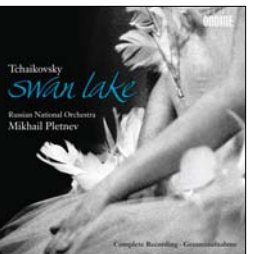
ODE11532
엘가: 첼로협주곡(비올라편곡)
슈니트케: 비올라협주곡
데이비드 아론 카펜터(vn)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필하모니아
그라모폰 에디티스 초이스, 피치카토 수퍼소닉
비올라계의 신성으로 급부상 중인 데이비드 아론 카펜터의 센세이션얼 데뷔 레코딩. 라이오넬 터티스가 비올라를 위해 편곡한 엘가의 첼로협주곡과 슈니트케의 비올라협주곡을 함께 수록한 이 음반은 그라모폰을 비롯한 세계 유력지로부터 호평을 이끌어내었다. "담대하고도 인상적인 데뷔 레코딩" -그라모폰



ODE11422
파가니니: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칸타빌레 외
페카 쿠시스토(vn)
이스모 에스켈렌(guitar)
Klassik Heute 10
바이올리니스트 페카 쿠시스토는 1996년 20세의 나이로 시벨리우스 콩쿠르를 석권했던 핀란드의 기대주다. 모래시계의 헤린의 테마로 유명해졌던 Op.3-6을 비롯한 5편의 소나타와 서정미의 극치인 '칸타빌레' 그리고 초절기교의 화려함을 담은 '타란텔라' 등 바이올린과 기타 이중주를 위한 파가니닌의 인기작들을 엄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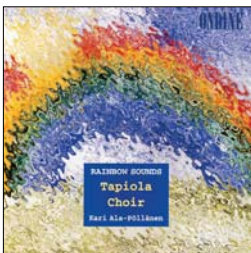
ODE1134-2D [2 Hybrid-SACD]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시모나 사투로바(sop)
이본 내프(ms)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필라델피아 orch.
독일음반비평가상, 피치카토 수퍼소닉, Classicstoday 9/8
이 음반은 말러 부활교향곡의 일급 연주이자 레코딩으로, 최근 카탈로그에 추가된 경쟁반들을 쉽사리 압도한다. 나는 이 신보를 최상급의 추천반 자리에 놓는다. Christopher Abbot - Fanfare Magazine 2009 5/6



ODE1167-2D [2CDs]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전곡
미하일 플레트네프
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Classicstoday 9/9
한동안 레코딩이 뜸했던 플레트네프/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가 온디 레이블을 통해 자신들의 근황을 알렸다. 차이코프스키의 걸작 발레 '백조의 호수' 전곡을 수록한 이 음반에서 플레트네프의 명쾌한 지휘와 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합주력은 온디의 고해상도 녹음을 통해 한결 선명하게 위력을 드러낸다.



ODE917-2
슈베르트:
장엄미사, 스타바트 마테르, 살베 레지나
이소코스키, 그룹, 울란, 코틸라이넨
페터 슈라이어
타피올라 신포니에타
슈베르트가 마지막으로 완성한 두 미사는 그의 종교합창곡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꼽힌다. 그중 5번은 당당한 스케일로 인해 '장엄미사'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핀란드가 배출한 정상급 여가수들인 소일레 이소코스키와 모니카 그룹이 함께 참여한 이 음반은 세계적인 테너 페터 슈라이어가 지휘를 맡은 점이 이채롭다. 슈라이어는 테너와 관현악을 위한 살베 레지나에서 원숙의 가치를 들려주기도 하다.



ODE884-2
레인보우 사운즈
(세계 각지의 민요와 캐럴들)
카리 알라 레넨
타피올라 콰이어
핀란드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어린이합창단 타피올라 콰이어가 노래하는 세계 각국의 전통민요와 캐럴들. 핀란드민요 '칼레발라', '노래하는 눈', 일본민요 '붉은 잡자리', '아이즈반도의 화산', 아프리카민요 '시아함바', 흑인영가 'Let It Shine', 마오리민요 'Tutira Mai', 바스크민요 '기다림' 등과 토르미스의 '핀-우그르 풍경', 코르테캉가스의 '3개의 피오르드 스케치' 등을 수록.



ODE1106-2
바스크스:
파터 노스터, 미사, 도나 노비스 파첸
라트비아 라디오 합창단
식바르즈 크와바
신포니에타 리가
그 라 모 폰 추 천 음 반 , Classicstoday 10/10
라트비아의 페테리스 바스크스는 에스토니아의 파트트, 그루지아의 칸첼리, 우크라이나의 실베스트르와 더불어 현재 세계 음악계의 큰 화제를 낳고 있는 일군의 구소련권 출신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수록된 3편의 종교합창곡은 파트트의 정갈하고도 명상적인 분위기를 닮아있지만, 보다 아름답고 유려한 선율미를 자랑한다.



ODE1094-5
생상: 교향곡 3번
플랑: 오르간협주곡
바바: 토카타 페스티마
올리비에르 라트르(org)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BBC 뮤직매거진 초이스, 그라모폰 추천 음반, 2007년 골든이어 어워드 수상작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베이스인 버리존홀에 소재한 FJ 쿠퍼 기념 오르간은 미국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오르간이다. 본 음반은 2006년 5월 이 오르간의 개설기념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오르간과 관현악을 위한 가장 유명한 세 작품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귀를 위한 진정한 축제' - David Hurwitz Classicstoda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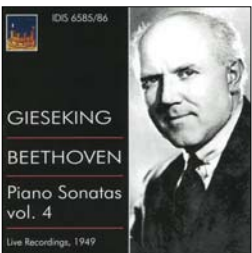


Dynamic

www.dynamic.it



CDS640
비외탕:
바이올린협주곡 4,5번
마시모 콰르타(vn, cond)
오케스트라 하이든 디 볼차노 이트렌토
낭만시대 프랑스-플랑드르 바이올리니스트 계보의 큰 이름은 앙리 비외탕은 자신의 뛰어난 기교를 과시하기 위한 쇼피스용 협주곡들을 7편 완성하였다. 그중 가장 널리 연주되는 작품들이 4,5번이다. 1991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인 마시모 콰르타는 파가니니 협주곡 전집으로 크게 호평을 받았던 연주자로, 이 음반에서는 독주자로서는 물론 지휘자로서도 준수한 활약을 펼쳐보인다.



IDIS6585/86 [2CDs]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16, 24-29, 32번
발터 기제킹(pf)
1956년 발터 기제킹은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전곡녹음을 위해 런던으로 향하나, 도중에 갑작스런 발병과 때이른 그의 죽음으로 이 프로젝트는 미완성으로 끝나고 만다. 당시 9편의 소나타들이 미처 녹음되지 못했었는데, 기제킹이 남긴 1949년의 실황녹음들로 그 작품들을 대체한 것이다. 다만 소나타 22번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실황음원들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빈 자리로 남고 말았다.



IDIS6578/79 [2CDs]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9-15, 17번
발터 기제킹(pf)
1956년 발터 기제킹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녹음을 위해 런던으로 향하나, 도중에 갑작스런 발병과 때이른 그의 죽음으로 이 프로젝트는 미완성으로 끝나고 만다. 본 음반은 당시 녹음이 완료되었던 소나타들 중 14편 '월광'을 비롯한 8작품을 2장의 CD에 나누어 수록한 것으로, 화려한 테크닉과 섬세한 서정을 겸비했던 이 위대한 피아니스트의 마지막 열정을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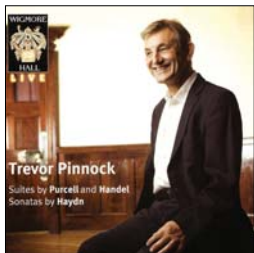


IDIS6580
베토벤:
서곡(코리올란, 피델리오, 에그몬트, 헌당식, 레오노레 3번 외)
이고르 마르케비치
라무워 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출신의 지휘자 이고르 마르케비치는 러시아 레퍼토리와 프랑스 발레 음악의 스페셜리스트로 큰 이름을 남겼다. 그는 뛰어난 베토벤 해석가이기도 했지만, 그의 베토벤 녹음들은 극소수만 남아있다. 본 음반은 프랑스 라무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활약하던 당시인 1958년에 남긴 녹음들로 베토벤의 대표 서곡 여섯 곡을 함께 수록하였다. 특히 에그몬트 서곡은 CD로는 최초로 선보이는 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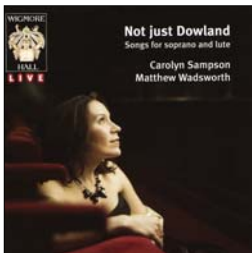


Wigmore Hall L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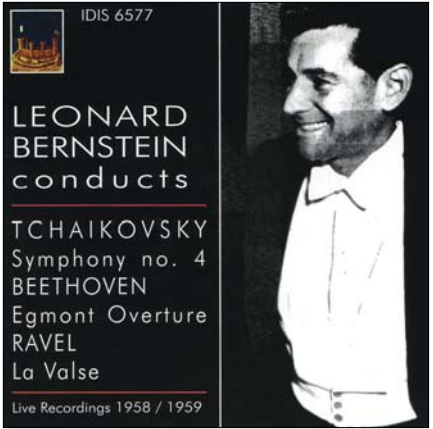
www.wigmore-hall.org.uk



Whlve 0033
트레버 피녹 하프시코드 리사이틀
퍼셀: 모음곡 2,4번
하이든: 소나타 hob.16-14, 27
헨델: 모음곡 2,7번
영국이 낳은 최정상의 하프시코드 연주자이자, 잉글리시 콘서트의 리더로 시대악기 연주의 전 세계적 붐을 일으켰던 선각자 중 한 사람인 트레버 피녹. 본 음반은 2009년 5월 1일 위그모어홀에서 있었던 피녹의 하프시코드 리사이틀을 수록한 것으로, 퍼셀과 헨델의 모음곡, 그리고 하이든의 초기 건반소나타 각 두 편씩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과 두 개의 앙코르까지 고스란히 담았다.



Whlve0034
캐롤린 샘슨 & 매튜 워즈워스 류트 송 리사이틀
존 다울랜드, 로버트 존슨, 카치니, 몬테베르디 등의 노래와 류트독주곡들
내한공연을 통해 국내 고음악애호가들에게도 크게 환영받았던 소프라노 캐롤린 샘슨과 류트 연주자 매튜 워즈워스의 듀오 리사이틀. '어둠 속에 날 내려주소'를 비롯한 다울랜드와 로버트 존슨의 대표 류트송들과 카치니의 '아마릴리 미아 벨라'를 비롯한 이탈리아 바로크 성악곡들,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의 류트와 테오로보 독주곡들로 알차게 프로그래밍을 꾸렸다.



IDIS6577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 베토벤: 에그몬트서곡 / 라벨: 라발스
레너드 번스타인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번스타인이 뉴욕 필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50년대 후반의 실황음원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데, 이번 음반은 젊은 시절 레니의 기백을 제대로 보여준다. 취임 첫 해인 1958년 뉴욕에서의 실황인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과 1959년 뉴욕 필의 역사적인 소련 순회공연 중의 실황들인 베토벤의 에그몬트서곡과 라벨의 라발스를 함께 수록하였다.



CDS653 [2CDs]
레그렌치:
교회를 위한 연주회용 음악들
(미사와 저녁기도)
리카르도 파베로
오피치나 무지쿰
조반니 레그렌치(1626-90)는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작곡가다. 비발디 이전에 북이탈리아 일대의 가장 주요한 작곡가의 한 사람 이었고, 성악과 기악 양분야 모두에 걸쳐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그의 첫 출판 작품집인 교회를 위한 콘체르티 무지칼리 Op.1은 4성부를 위한 미사와 장엄 저녁기도 두 파트로 구성되었다. 플레인찬트, 기악이 적절히 삽입된 저녁기도의 위용이 특히 빼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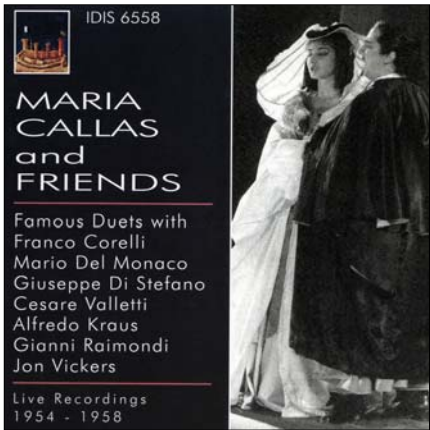


CDS657
아네테 폰 멘츠의 음악살롱
(캔츠바허, 라이너, 후버, 폰 칼)
루이지 루포(II)
주제페 카러(guitar)
18세기 후반 거부의 딸이자 음악애호가였던 아네테 폰 멘츠는 방대한 악보를 수집했다. 신보는 그 컬렉션에 포함된 4명의 작곡가들의 아가자기한 기악곡들을 담았다.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캔츠바허의 세레나데, 기타를 위한 라이너의 대변주곡, 후버가 기타를 위해 편곡한 스포네티니의 오페라 라 베스타레 중의 행진곡, 폰 칼의 두 작품인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세레나데와 기타를 위한 트리오소나타 등을 수록.



IDIS6564
조콘다 데 비토의 마지막 녹음들 (바흐, 모차르트의 협주곡)
조콘다 데 비토(vn)
라파엘 쿠벨릭
런던 심포니, 로얄 필하모닉

1959년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여류 바이올리니스트 조콘다 데 비토가 남겼던 마지막 스테레오 스튜디오 레코딩들을 담았다. 바흐의 협주곡 BWV1042와 모차르트의 협주곡 3번을 라파엘 쿠벨릭과 협연한 것으로 런던 심포니와 로얄 필하모닉이 각각의 반주를 맡았다. 1947년과 1950년에 나누어 녹음한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BWV1004가 보너스 트랙으로 함께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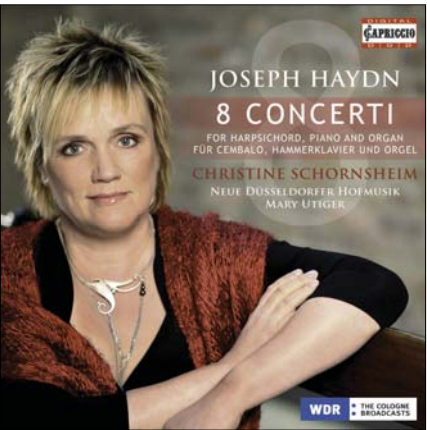
IDIS6558
마리아 칼라스와 친구들 (이중창 모음집)
칼라스+코렐리, 델 모나코, 디 스테파노,
발레티, 크라우스, 라이몬디, 빅커스

1954년부터 1958년 사이에 마리아 칼라스가 당대의 대표 테너들과 함께 노래했던 오페라 이중창들을 수록한 음반. 코렐리(스폰티니의 라 베스타레), 델 모나코(벨리니의 노르마), 디 스테파노(베르디의 가면무도회), 발레티(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크라우스(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라이몬디(도니제티의 안나볼레나), 빅커스(케루비니의 메데이아) 등이 칼라스와 호흡을 맞췄다.



Capriccio

www.capriccio.at



C5022 [2 for 1]
하이든:
8개의 협주곡
크리슈틴 쇠른샤임(key)/ 마리 우티거
노이에 뒤셀도르프 호프무지크

독일을 대표하는 고건반악기 연주자인 크리슈틴 쇠른샤임이 하이든의 서거 서거 200주기를 기념하는 특별한 음반을 완성하였다. Hob.XVIII 중의 여덟 협주곡을 2장의 CD에 수록한 것으로, 오르간(1,8,10번), 하프시코드(2,3,5), 포르테피아노(4,11번)로 악기를 번갈아가며 연주하였다. 마리아 우티거가 지휘하는 노이에 뒤셀도르프 호프무지크의 정갈한 반주가 함께하였다.



C71081 [Hybrid-SACD]
첼린스키:
서정교향곡
크리슈틴 새퍼(sop)/ 마티아스
괴르네(br)/ 크리스토프 에센바
흐/ 파리 오케스트라

첼린스키의 '서정교향곡'은 말려
의 '대지의 노래'를 모델로 완성
된 작곡가의 대표 관현악곡이다.
타이틀 그대로 작품 가득 채워진
로맨틱한 서정을 소프라노와 바
리톤 솔리스트가 대화형태로 아
름답게 풀어나간다. 최정상급 성
악가들인 크리스틴 새퍼와 마티
아스 괴르네, 그리고 에센바흐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가 연
주한 이 음반은 뛰어난 음질과 완
성도 높은 연주로 이 작품의 차세
대 레퍼런스로 각광받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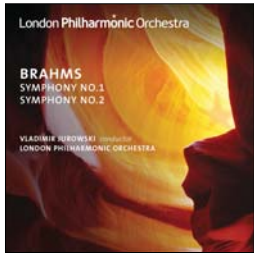
C5025
하이든:
칸초네텐 (피아노 반주의 가곡들)
루트 지작(sop)
게를트 후버(pf)

하이든의 가곡 대부분은 1780년
대 빈과 1790년대 런던에서 출
판되었다. 신보의 수록곡들 역시
독어와 영어 텍스트의 작품들이
공존한다. 하이든의 가곡은 다른
장르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있지
만, 이후 다가올 독일 리트의 전
성기를 예견하는 매력적인 작품
들로 가득하다. 정성급 리릭 소
프라노 루트 지작의 청아한 음성
과 게를트 후버의 담백한 반주가
하이든 가곡의 아기자기한 매력
을 충실히 전달해 준다.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

www.lpo.co.uk



LPO0043 [2 for 1.5]
브람스:
교향곡 1,2번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브람스는 베토벤의 교향곡들에 대한 깊은 경외감으로 첫 교향곡을 무려 21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완성하였다. 반면 교향곡 2번은 불과 몇달만에 쾌속으로 완결되었다. '암흑에서 광명으로'라는 베토벤적인 전통에 충실한 1번과 전원적인 평온함을 담은 2번은 그 자체로도 강렬한 대비 효과를 보여준다. 런던 필의 젊은 수장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가 2008년 5월과 9월 로얄 페스티벌에서 남긴 실황음원들을 함께 묶었다.



LPO-0044 [2 for 1.5]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이본 케니(sop), 야드 반 네스(ms)
클라우스 텐슈테트
런던 필하모닉과 합창단

1987년 심각한 건강악화로 런던 필의 상임지휘자 자리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텐슈테트는 그 이후에도 계관지휘자로 수차례 동악단을 지휘하였다. 1989년 2월 텐슈테트는 런던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을 두 차례 지휘하였다. 이 콘서트들은 즉시 전설적인 위상을 얻게 되었는데, 감동과 신념, 음악적 깊이와 생생한 분위기를 담은 이 믿을 수 없는 콘서트가 여기에 생생하게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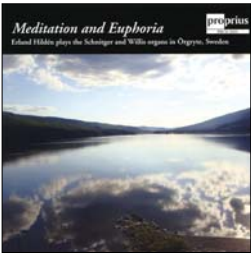
Proprius

www.proprius.com



PRCD2052
심포닉 스웨덴 오르간
안데르스 온손(말피 성 요한 교회 오르간)

말피의 성 요한교회는 훌륭한 아쿠스틱과 더불어 45개의 레지스터를 갖춘 대형오르간으로 유명하다. 올렌, 로젠베르크, 스킴트, 베드리히 야나체크 같은 20세기 스웨덴 작곡가들의 오르간 작품들과 고전시대 활약했던 스웨덴 작곡가 로만의 축제음악 드로트닝홀름무지켄을 베드리히 야나체크 오르간을 위해 편곡한 버전 등을 담은 이 음반에서 이 오르간의 장쾌한 사운드 스펙트럼이 유감없이 발휘된다.



PRCD2055
명상과 행복 - 얼란트 힐덴의 오르간 작품들
얼란트 힐덴(에테보리 외르그리테 교회 오르간)

스웨덴의 대표적인 오르간 연주자인 얼란트 힐덴은 작곡가로서도 다수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비도르의 오르간을 위한 교향곡들을 연상케하는 장대한 스케일의 작품인 교향곡 1번과 바이올린과 오르간을 위한 서정적인 소품인 '명상곡', 역시 오르간 반주의 아름다운 성악곡인 '보칼리제', 오르간, 플루트, 마림바라는 독특한 조합을 위한 작품인 '행복한 명상'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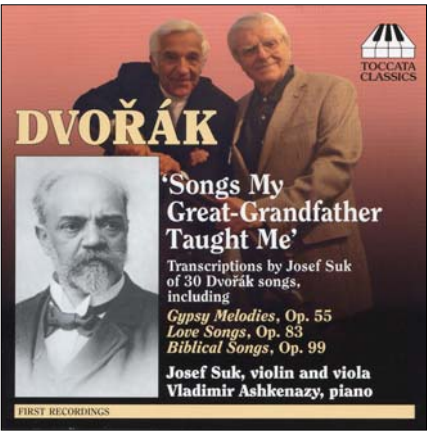
Dacapo
www.dacapo-records.dk



6.200001 [7 Hybrid-SACD]
랑고르:
교향곡전집 (1-16번)
토마스 다우스고르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과 합창단
Classicstoday 10/10 덴마크 작곡가 루에드 랑고르(1893-1952)는 후 기 낭만음악의 틀 안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정립했던 작곡가다. 피아노독주와 합창이 추가된 3번, 테너 솔로와 합창을 위한 8번,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모음곡 양식의 14번, 바리톤 솔로와 남성합창이 추가된 15번 등 교향곡으로 구현 가능한 다양한 스타일을 망라하고 있으며, 각 교향곡들의 타이틀을 적절히 구현하는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도 특기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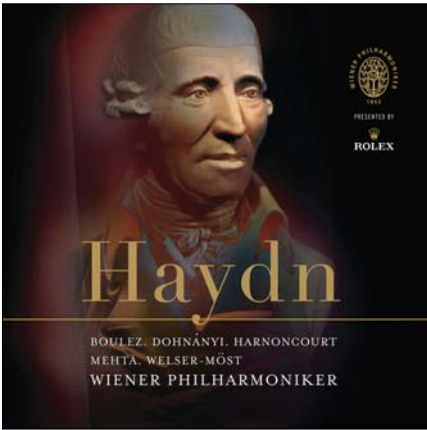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TOCC0100
나의 증조부가 가르쳐준 노래들 (드보르작 가곡 편곡)
요제프 수크(vn)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pf)
요제프 수크와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라는 최고의 거장들의 만남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주목받기에 충분한 음반이다. 음반의 타이틀이 말해주듯 드보르작의 감성적인 가곡 30편을 그의 외증손자인 요제프 수크가 바이올린과 피아노 이중주로 편곡하여 연주하였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 자장가, 10편의 성서적인 노래들, 8편의 연가 등 드보르작의 대표 가곡들이 로맨틱한 선율의 바이올린 소품들로 재탄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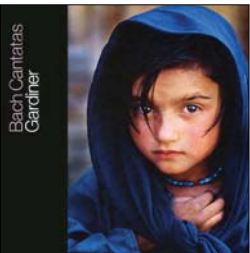
Wiener Philharmoniker
www.wienerphilharmoniker.at



빈 필하모닉이 최초로 자체 제작한 하이든 기념 음반
WPH-L-H-2009 [3CDs]
하이든:
교향곡 12, 22, 26, 93, 98, 103, 104 번
도흐나니, 빌저-외스트, 메타, 아르농쿠르, 불레즈
빈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최초의 자체 제작 음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하이든의 서거 200주기를 기념하여 출시하였던 자체 제작 음반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최정상급의 5명의 마에스트로와 남긴 일곱 교향곡의 실황 녹음을 3장의 CD에 나눠 담았다. 1972년 주빈 메타가 지휘한 22번의 실황부터 특히 아르농쿠르와 빌저-외스트가 지휘한 93번, 98번, 103번은 바로 2009년의 최신 실황들까지 망라되었으며, 비교적 접하기 힘든 도흐나니(12번)와 불레즈(104번)의 하이든도 이 음반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Soli Deo Gloria
www.solideogloria.co.uk



SDG 165 [2CDs]
JS 바흐: 칸타타 Vol.2
리사 라르손, 캐서린 퍼지(sop)/ 다니엘 테일러, 로빈 타이슨(alt)/ 제임스 질크리스트, 버넌 커크(te)/ 스티븐 바코, 조나선 브라운(bass)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디너/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2007년 7월 파리의 생드니 성당과 취리히 프라우엔스터에서 있었던 실황으로 각각 삼위일체 후 두번째와 세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들을 담았다. 시편12편에 대한 루터의 찬가에 기초한 아름다운 코랄 칸타타 BWV2, 즐거운 분위기의 장대하고도 아름다운 도입 합창이 특기할 만한 독일어 마니파카트를 텍스트로한 칸타타 BWV12, 2부 14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장편 칸타타인 BWV76, 그리고 이와 같은 타이틀의 쉬츠의 모테트가 CD1에 수록되었다. CD2에는 바이마르시대에 완성한 두 편의 초기 칸타타들인 BWV21과 BWV135, 그리고 자신의 오르간 작품들을 전용한 작품인 플루트와 바이올린, 하프시코드를 위한 삼중협주곡 BWV1044가 함께 수록되었다.

- CD 1
삼위일체 후 두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
BWV 2 아 하나님 하늘에서 보소서
BWV 10 내 마음은 주를 찬양하도다
BWV 76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도다
쉬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도다 SWV386

- CD 2
삼위일체 후 세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
BWV 21 내 마음에 근심이 많도다
BWV 135 아 주여 가엾은 죄인인 나를
BWV 1044 플루트와 바이올린, 하프시코드를 위한 삼중협주곡



MD & G
www.mdg.de



610 1578-2
클래시카 아르헨티나 (탱고의 역사, 탱고 에튀드 외)
프란시스코 보몽(alt)/ 아네트 마이부르크(II)
호아킨 클레치(guitar)/ 귀도 시펜(vc)
〈클래시카 쿠버나〉음반으로 2009년 에코 클래식 상을 수상했던 아네트 마이부르크, 호아킨 클레치 콤비의 월드 클래식 시리즈의 두번째 음반. 아르헨티나 탱고 누오보의 기수 피아졸라의 작품들에 도전하였다. 플루트와 기타 이중주의 '탱고의 역사'와 솔로 플루트를 위한 탱고 에튀드, 기타를 위한 5개의 소품 외에도 알토 프란시스코 보몽의 감각적인 음성으로 노래한 3편의 성악곡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601 1601-2
드보르작:
교향곡 6번, 연주회용 서곡(자연에서, 카니발, 오텔로)
악 판 스텐
도르트문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2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중견악단인 도르트문트 필하모닉이 자신들의 데뷔 레코딩을 내놓았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6번은 이후의 세 작품 만큼 유명하지는 않으나 작곡가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출세작으로 독일 낭만주의의 틀 속에 체코의 민족주의 색채를 자연스럽게 접목시킨 수작이다. 유명한 '카니발'을 비롯한 연주회용 서곡 세 작품이 함께 수록되었다.



336 1599-2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6중주버전), 클라리넷오중주(피아노사중주버전)
만하임 쿼텟/ 제바스티안 뷔르거(va)
마티아스 네메트(db)/ 토마스 뉘이스(pf)
모차르트의 유명한 두 걸작을 색다른 버전으로 수록한 음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는 현악육중주 버전으로, 클라리넷오중주는 피아노사중주 버전으로 각각 편곡되었다. 두 편곡 모두 모차르트 당대에 이뤄진 것으로 편곡자는 불명이다. 원곡의 빼어난 매력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달리 진 연주편성으로 인해 귀에 익은 이 작품들의 선율이 한층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307 1585-2
하이든:
현악사중주 Op.50 - 1,4,5
라이프치히 현악사중주단
독일을 대표하는 중견 현악사중주단이자 실내악 명가 MDG의 대표 아티스트들인 라이프치히 쿼텟이 진행중인 하이든 현악사중주 시리즈의 두번째 음반. 신보에 수록된 Op.50의 1,4,5번은 1786-87년에 완성되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에게 헌정된 작품들로 이 장르에 대한 하이든의 원숙한 노하우가 심분 발휘된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다.



333 0614-2 [2CDs] 재발매
JS 바흐: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슈만 피아노반주 버전)
벤야민 슈미트(vn)
리사 스미르노바(pf)
슈만은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에 피아노반주를 덧붙임으로써 위대한 선배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였다. 이 피아노반주 버전은 아직 바흐의 음악세계에 익숙하지 못했던 낭만시대의 대중들에게 훌륭한 입문서 역할을 해주었다. 과거 MDG의 대표음반으로 사랑받았음에도 한동안 카탈로그에서 사라졌었던 이 음반이 새로운 커버로 재출시되었다.



613 1607-2
존 케이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안드레아스 자이델(vn)
슈테펜 쉘라이어마허(pf)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존 케이지의 모든 작품을 수록한 음반. 1947년 작품인 녹턴은 사티에 대한 오마주로, 프랑스 인상주의의 경계에 자리잡은 작품이다. 3년 뒤의 작품인 6개의 선율은 25개의 음표 조합으로 구성된 단순한 피아노 파트로 구성된 미니멀 계열의 작품이며, 90년대에 완성한 Two 연작은 우연성음악적인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이다.



605 1576-2
성 후버트를 위한 미사 (로카르트, 틴다레, 솜브론, 칸틴)
도이치 나투르호른 졸리스텐
요하네스 미헬(org)
독일 사냥꾼들은 가을마다 자신들의 수호성인인 성 후버트를 위한 미사를 드렸다. 19세기부터 이 미사를 위한 음악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통상적인 미사 순서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노래 없이 오르간 반주와 호른 만으로 연주되는 독특한 작품들이다. 9명의 내추럴 호른 주자들로 구성된 도이치 나투르호른 졸리스텐과 요하네스 미헬의 오르간이 만들어내는 장엄하기 이를 데 없는 소노리티의 향연을 만나 보시라.



345 1583-2
로시니:
관악오중주를 위한 하모니무지크 (탄크레디, 라 체네렌틀라)
마랄로트 관악 오중주단
로시니의 주요 오페라 두 편이 관악오중주를 위한 하모니무지크로 매력적인 변신을 하였다. 로시니를 유럽의 일급 오페라 작곡가로 등극시켰던 출세작인 <탄크레디>와 지금도 자주 공연되는 인기작인 <라 체네렌틀라>의 주요 장면들이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호른, 바순 편성의 관악오중주를 통해 신선한 느낌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관악기 애호가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609 1604-2 [3 for 2]
헨델: 오페라 <줄리오 체사레> 1724년 초연버전
크리스티나 함마스트룀 외/ 게오르게 페트로우
오케스트라 오브 파트라스
<줄리오 체사레>는 헨델의 가장 유명하고도 자주 연주되는 오페라임에도 전곡이 온전하게 녹음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지휘자 페트로우는 이 작품의 모든 부분이 완벽히 구현되었을 때 이 걸작의 진가가 확실히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세 편의 전작으로 헨델 오페라의 새로운 스펙트럼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지휘자와 그가 이끄는 그리스의 젊은 시대악기 오케스트라가 헨델의 걸작을 완벽히 구현하였다.



937 1584-6 [Hybrid-SACD]
쾨베르크:
5개의 관현악소품, 6개의 리트, 야상곡 외
마누엘라 우홀(sop)/ 슈테판 블루니에/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수장인 슈테판 블루니에가 쾨베르크의 관현악곡들로 MDG 데뷔레코딩을 장식하였다. 작곡가의 대표 관현악결작인 5개의 관현악소품과 말리의 '어린이의 이상한 뿔파리'와 연결되는 6개의 관현악반주 리트, 오랫동안 유실된 것으로 여겨졌던 로맨틱한 소품인 '야상곡', 바흐의 전주곡과 푸가 BWV552의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 등을 수록하였다.



903 1587-6 [Hybrid-SACD]
D. 스카를라티:
건반소나타 (기타를 위한 편곡)
스티븐 마쉰다(guitar)
바흐, 헨델과 같은 해에 태어난 이탈리아 작곡가 스카를라티는 스페인 궁정을 주무대로 500여편에 이르는 건반소나타를 양산하면서 이 분야의 주요 작곡가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기타 리스트 스티븐 마쉰다가 편곡은 원곡의 정갈한 아름다움을 충실히 계승함과 동시에 스페인 고유의 향토색을 한결 강하게 드러낸다. 현의 울림이 보이는 듯한 MDG 특유의 고풍상도 녹음이 연주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준다.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Arte OABD 7048D

베르디: 가면무도회

최고의 실력과 테너 마르셀로 알바레즈가 열연한 베르디 중기 걸작

〈가면무도회〉는 ‘테너의 오페라’다. 전통적인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테너는 소프라노의 상대역이요, 남자 주인공이기는 해도 성급한 판단으로 서두르는 바람에 비극을 초래하는 미성숙한 인격체로 그려지곤 한다. 베르디도 그런 오페라를 섭렵한 후에 〈가면무도회〉를 작곡했는데, 보스톤 총독 리카르도는 부하의 아내 아멜리아를 사랑하는 걱정대사로 잡히지만 이윽고 그 열정을 힘겹게 통제하려는 성숙한 주인공의 모습을 변화한다. 이전 오페라의 테너들과 달리 어른스런 남자로 진화하는 진정한 전환점이 된 오페라인 것이다. 실력과 표현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정통파 테너로 인정받는 아르헨티나의 마르셀로 알바레즈가 리카르도 역으로 나섰다. 벨칸토로 다져진 미성과 대형가수의 파워를 겸비한 알바레즈의 숨씨는 파바로티와 도밍고 등 전설적 선배에 견줄 만하다. 아멜리아 역의 비올레타 우르마나는 메조소프라노로 출발한 가수답게 풍부한 성량과 진솔한 연기로 베르디 중기작의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테아트로 레알 마드리드의 2008년 9월 실황이며 동 극장을 이끄는 거장 해수스 로페스 코보스가 지휘한다. 이탈리아의 영화감독이자 극장연출가이자 대본작가이기도 한 마리오 마르토네는 극의 어두운 분위기를 잘 살려냈다.



OpusArte OABD 7050D

카발리: 사랑에 빠진 헤라클레스

‘바로크 오페라의 푸치니’ 카발리의 가장 휘황찬란한 오페라

초기 바로크 오페라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라면 그의 후계자이자 대중적인 숨결을 불어넣은 이가 프란체스코 카발리(1602~1676)다. 그래서 혹자는 “몬테베르디가 바로크 오페라의 베르디라면 카발리는 바로크 오페라의 푸치니에 해당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에르콜레 아만테〉는 ‘사랑에 빠진 헤라클레스’란 뜻으로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와 스페인 공주 마리아-테레제와의 결혼 축하극으로 주문받은 것이다. 작곡이 늦어져 결국 미리 작곡한 〈일 세르세〉가 대신 공연되었고 〈에르콜레 아만테〉는 2년 후인 1662년에 7천명의 프랑스 왕족과 귀족 앞에서 초연되었다. 바로크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호화찬란하면서도 카발리의 특기인 대중적인 재미가 살아있는 작품이다. 미국의 쌍둥이 연출가 올든 형제의 한사람인 데이비드 올든은 바로크 오페라를 포스트 모더니즘 방식으로 구현하는 독특한 위트로 유명한데, 이번 연출에서는 ‘뽕’ 근육의 우람함과 엄청난 굵으로 키를 늘린 헤라클레스를 등장시키는 등 그 유머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옛 음악을 현대청중에게 명쾌하게 전달하는 재능이 뛰어난 이보르 볼텐이 지휘한 2009년 네덜란드 오페라 실황이다. 이탈리아의 미남 바리톤 루카 피사로니가 영웅성과 희극성을 겸비한 헤라클레스 역을 맡았다.



OpusArte OABD 7067D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바그너의 성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2009년 개막 프로덕션

바그너는 바이에른의 젊은 국왕 루트비히 2세의 후원을 받아 바이로이트에 자신만의 오페라를 공연하는 극장을 지었고 지금도 이곳은 여름마다 페스티벌이 열려 전 세계 바그네리안이 찾는 일종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그 음악적 수준이야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각 프로덕션의 연출은 향후 오페라 연출계의 흐름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수준 높고 실험적인 도전이 많은데, 2009년 페스티벌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크리스토프 마르탈러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도 그러하다. 시니컬한 풍자가인 스위스 출신의 마르탈러는 이 ‘에로스과 죽음의 오페라’를 점점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가는 ‘느린 침몰’로 묘사했다. 각 막의 무대는 기본적으로 같지만 막이 진행될수록 무대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3막은 지하실로 꾸민 것이다. 막마다 주인공의 의상과 분장도 완전히 바꾸어서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그 유명한 이졸데의 ‘사랑의 죽음’은 그 어떤 연출보다도 인상적으로 처리되었다. 바그너 테너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미국의 로버트 딘 스미스(트리스탄), 바그너 소프라노의 산실인 스웨덴의 이레네 테오린(이졸데)가 운명적인 비극의 주인공을 노래하고 바그너의 대가인 거장 페터 슈나이더가 지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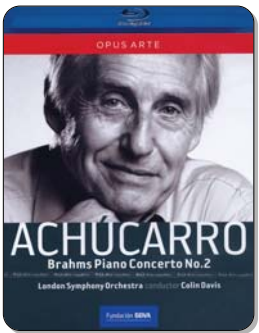


OpusArte OABD 7051D

모차르트: 돈 조반니

돈 조반니, 1940년대 스페인의 군사독재 시대를 활보하다

〈돈 조반니〉는 원래 17세기 스페인을 배경으로 전설적 바람둥이의 ‘죄와 벌’에 대한 얘기이다. 스페인어로는 ‘돈 후안’이 된다. 2005년 10월 스페인의 테아트로 레알 마드리드 실황인 본 영상물에서는 그 무대를 1940년대의 스페인으로 옮겨 놓았다. 당시는 군부 출신의 프랑코총통이 스페인 내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이베리아 반도를 군사독재로 통치하기 시작한 암울한 시기. 따라서 대부분의 남성 출연자들은 군복 차림으로 등장하며, 돈나 안나와 돈나 엘비라 역시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어두운 분위기의 의상으로 희극도 아니고 비극도 아닌 〈돈 조반니〉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잘 살려냈다. 그런 가운데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이탈리아 라 스칼라 가극장의 무대와 의상 총책임자가 합류하여 ‘어두움 속에서 빛나는 광채’도 드러낸다. 무대도 돋보이지만 더욱 눈에 띄는 것은 라틴계의 현역 최고 스타들로 구성된 드림 출연진이다. 카를로스 알바레즈(돈 조반니)와 로렌초 레가초(레오폴로), 마리아 바요(돈나 안나), 소냐 가나시(돈나 엘비라), 마리아 호세 모레노(체를리나), 호세 브로스(돈 오타비오)가 출연하며, 특히 스페인의 리릭 테너 호세 브로스가 격찬을 받았던 실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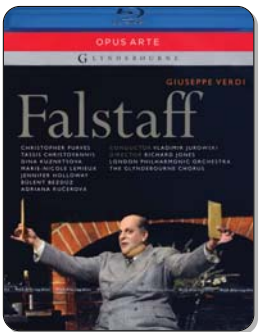


OpusArte OABD 7054D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 쇼팽, 스크랴빈, 알베니스의 피아노 소품들
호이킨 아추카로(pf)/ 런던 데이비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페인의 국보급 피아니스트 호이킨 아추카로의 영국데뷔 50주년 기념 영상물

1936년 스페인 빌바오에서 태어난 호이킨 아추카로는 1959년 영국의 리버풀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음악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해 런던 심포니와 더불어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랩소디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국 데뷔 무대를 가진 이후 60여 개국을 오가며 200개 이상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무대를 가지는 등의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1996년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 국왕은 그에게 기사작위를 수여했으며, 2000년 유네스코는 그를 ‘Artist of Peace’로 임명하였다. 본 영상은 지난 2009년 5월 런던 자우드 홀에서 녹화된 것으로,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와 협연한 브람스의 피아노협주곡 2번을 수록하였다. 피아노가 포함된 교향곡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작품의 당당한 스케일과 풍부한 서정은 두 노대가의 심원한 예술적 해안을 통해 한층 더 감동적으로 그려졌다. 메타, 도밍고, 래틀 등의 인터뷰가 포함된 아추카로의 연주 이력에 관한 42분 분량의 다큐멘터리와 프라도 미술관에서 녹화된 37분 분량의 피아노독주 연상이 보너스로 함께 제공된다.



OpusArte OABD 7053D

베르디: 팔스타프

시트콤 분위기의 프로덕션으로 탄생한 베르디의 걸작 희가극

베르디는 신중하고 인생의 비극적인 면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마지막 작품을 희가극으로 장식했다니! 그런데 이 희가극은 덜 웃기고, 예상외의 반전도 없이 그저 80세의 노인이, 그것도 권력의 덧없음과 사랑의 비극을 평생토록 그려온 작곡가가, 아무런 속박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로 인간사를 바라보는 경지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최고의 희가극인데도 그 무게감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영국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의 최신 〈팔스타프〉는 대가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부담을 벗어던졌다. 찰스 왕세자의 초상화가 상징하듯이 배경을 현대로 바꾸었으며, 색채감 넘치는 무대와 재기발랄한 의상이 판치는 분위기 속에서 마치 요즘 TV 시트콤을 보는 것 같다. 온갖 모순을 생생하게 풍자하는 고급 코미디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아온 〈팔스타프〉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글라인드본을 이끄는 최고의 스타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가 지휘를 맡고 있으며 희가극에서 한층 더 중요한 앙상블의 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출연자들이 감칠맛나는 하모니를 선사한다. 2009년 6월 실황.



OpusArte OABD 7055D

레하르: 유쾌한 미망인

눈과 귀를 압도하는 '초호화 버라이어티쇼'

2001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프로덕션은 불가리아와 들을 거리에서 감상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호화로운 세트와 의상은 눈을 압도하고 시종 달콤하게 포장된 레하르의 멜로디는 귀를 매혹시킨다. 가수들은 빼어난 연기와 연출을 통해 오페레타의 연극적인 성격을 훌륭하게 살리면서도, 아리아와 합창에서는 정가극 스타일의 충실한 가창을 선보인다. 주인공 이본 케니(한나)가 부르는 '빌라의 노래'는 품격의 무게를 갖춘 대표적인 예이다. 공들인 발레 안무도 빼놓을수 없는 메리트. 독일어 대신 영어로 불리지만 전혀 어색함을 느낄 수 없다. 빈 오페레타의 정수를 담은 수작.



www.cmajor-entertainment.com



C-Major 701504

베르디: 오텔로

21세기의 새로운 드라마틱 테너 알렉산더 안토넬코의 놀라운 <오텔로>

베르디 만년의 걸작 <오텔로>는 셰익스피어의 원작보다 더 긴장감 넘친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오텔로 역에서 드라마틱 테너의 모든 가치를 뽑아낸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방의 흑인이라는 한계를 딛고 베네치아령 키프로스의 총독으로 부임한 오텔로는 젊고 아름다운 백인 아내 데스데모나를 맞아들인다. 그러나 부하 이야고는 동료 카시오가 먼저 진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오텔로를 파멸시키는 계략에 착수한다. 그 핵심은 사랑의 정표로 데스데모나에게 주었던 손수건을 이용하여 오텔로의 질투심과 열등감이 끓어오르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전쟁영웅 오텔로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다. 오텔로 역의 명가수는 한 세대에 한 사람만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난역이다. 그 계보는 드라마틱 테너의 전설 마리오 델 모나코, 존 비커스,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쿠라로 이어졌다. 여기 라트비아의 새로운 테너 알렉산더 안토넬코가 도전한다. 어두우면서도 품격 있는 음색, 영웅적인 체격과 용모는 21세기를 대표할 드라마틱 코의 탄생을 선언한다. 2008년 잘츠부르트 페스티벌에서 호평 받은 실황이며 러시아의 떠오르는 스타 마리나 폴라프스카야(데스데모나), 스페인의 중견 카를로스 알바레스(이아고), 리카르도 무티의 확고한 지휘, 상징성과 조형 효과가 뛰어난 스티븐 랭그리지의 연출 모두 일대 호연이다.



C-Major 701004

바그너: 지크프리트

랜스 라이언(지크프리트)/ 유하 우시탈로(보탄)/ 제니퍼 윌슨(브륄힐데)/ 게하르트 지젤(미메) 외
주빈 메타/ 발렌시아 커뮤니티아트 오케스트라

현란한 3D 컴퓨터 그래픽 위로 펼쳐지는 영웅 지크프리트의 성장드라마

'지크프리트'는 '니벨룽의 반지'의 세 번째 작품으로 천방지축의 소년 지크프리트가 신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영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일종의 성장드라마다. 스페인 발렌시아에 위치한 최첨단 공연예술장인 팔라우 데 레자르의 무대에 올랐던 '링' 프로덕션은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프랑크 알레우의 두 눈을 압도하는 화려한 3D 컴퓨터그래픽과 바르셀로나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공연단체인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상상력 풍부한 행위예술을 통해서 150년 전 바그너가 꿈꿨던 총체적인 종합무대예술의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시켰다. 화려한 볼거리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완성도 역시 빼어나다. 2006/7년 시즌 오페



C-Major 701204

른벨트지에 의해 올해의 가수로 선정되었던 캐나다 출신의 차세대 헬덴테너 랜스 라이언이 강력한 성대와 흔들림 없는 스테미나로 지크프리트를 열연하였고, 유하 우시탈로의 카리스마 넘치는 보탄과 미메의 현신과도 같은 게하르트 지젤의 연기도 강한 인상을 남긴다. 세계각지에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유망주들로 구성된 발렌시아 오케스트라 역시 바이로이트가 부럽지 않은 장대한 바그너 사운드를 들려준다.

바그너: 신들의 황혼

랜스 라이언(지크프리트)/ 제니퍼 윌슨(브륄힐데)/ 마티 살미넨(하겐)/ 랄프 루카스(군터) 외/
주빈 메타/ 오케스트라 데 라 커뮤니티아트 발렌시아나

갖가지 첨단 테크놀로지들이 총동원된 21세기 형 SF 링의 장대한 대단원

스페인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발렌시아에 자리 잡은 최첨단 공연장인 팔라우 데 레자르의 '링' 프로덕션의 완결작. 극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해주는 정상급 비디오 아티스트 프랑크 알레우의 상상력 풍부한 컴퓨터그래픽과 스페인의 자랑거리인 퍼포먼스 그룹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애크로바틱에 가까운 행위예술, 기계화되고 소비주의로 점철된 현대의 사회상을 표현한 롤란드 올베터의 무대미술, 흡사 영화 '제5원소'를 연상케 하는 추 우로스의 최첨단 의상이 어우러지면서, 21세기형 SF '링'의 대단원이 장대하게 마무리된다. 특히 이 프로덕션의 모든 테크놀로지들이 총동원된 마지막 발할 성의 파괴 장면은 바그너의 사슴시스를 가장 충실히 시각화해놓은 연출의 중 하나로 손꼽힐 것이다. 지크프리트를 열연한 캐나다 출신의 헬덴 테너 랜스 라이언과 브륄힐데를 노래한 풍부한 성량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제니퍼 윌슨이 신예의 패기를 보여준다면, 극 전체의 든든한 중심을 잡아주는 마티 살미넨의 하겐은 베테랑다운 노련함을 대변한다. 세계각지에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유망주들로 구성된 발렌시아 오케스트라 역시 바이로이트가 부럽지 않은 장대한 바그너 사운드를 들려준다.



www.arthaus-musik.com



TDK DVBD-OPP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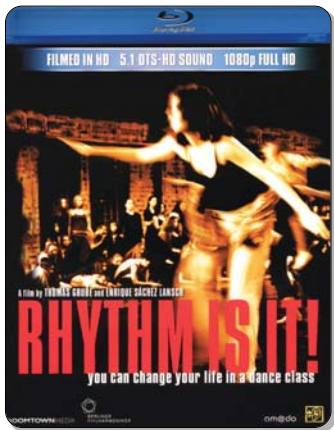
드뷔시: 오페라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차가운 설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드뷔시의 몽환적인드라마

'펠리아스와 멜리장드'는 드뷔시가 남긴 유일한 오페라이자, 20세기 벽두에 서구 음악계의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현대의 문제작이다. 메테를링크의 상징주의 무대극에 기초한 이 5막 오페라는 드뷔시가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작품으로, 자신이 존경해마지않던 바그너의 음악극을 인상주의로 대표되는 자신의 독특한 음악언어로 재창조한 것이었다. 가공의 중세왕국 알르몽드의 왕자 골로와 의문의 여인 멜리장드, 그리고 이들 사이에 끼여든 골로의 이복동생 펠리아스. 이들의 엇갈린 애증과 그에 따른 비극을 그린 이 오페라는 신비하고 상징적인 극의 내용만큼이나 몽환적이고도 탐미적인 음악서법으로 구성되었다. 본 영상물은 2004년 취리히 오페라극장의 프로덕션을 수록한 것으로, 현대 오페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 왔던 독일연출가 스벤에릭 베흐톨프가 연출을 맡았다. 그는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한 순백의 설국을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의 미묘한 심리변화를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로드니 질프리, 이사벨 레이, 코르넬리아 칼리쉬, 미카엘 볼레 등의 일급 성악가들의 열연과 뮐저외스트의 정교한 지휘가 공연의 완성도를 배가시켰다.



www.cascade-medien.com



Cascade 60098

RHYTHM IS IT!

2009년 독일과 일본 음반시장을 흔들어 놓았던 초강력 베스트 셀러

- * 베를린 필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했던 야심찬 공연 다큐
- * 세계최고의 오케스트라와 빈민가 청소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의 휴먼드라마
- * 본편 다큐멘터리 전체에 한글자막 제공
- * 부가 영상으로 베를린 필, 사이먼 래틀 지휘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발레 공연버전과 콘서트 버전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 * 2006년 에코 클래식 어워드, 2006년 독일 음악 비평가협회상 외 다수 수상

클래식 문외한인 가난한 청소년들이 베를린 필과 공연한 기적의 기록

이것은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에 버금가는 감동적인 기록이다. 베를린에도 빈민층이 있고,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이주민들로 인해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 아이들은 타고난 가난에 절망하여 어릴 때부터 소외자로 자라났다. 이들을 위한 놀라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영국의 안무가 로이스턴 말둠과 베를린 필의 상임지휘자 사이먼 래틀이 상상할 수 없었던 과제에 도전한 것이다. 클래식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발레 교습을 받은 적도 없으며, 벌써 삶에 지쳐 담배에 찌든 8세에서 20세의 청소년 250명을 모아 현대음악의 걸작인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무용으로 공연하고자 몇 주에 걸쳐 연습하고, 베를린 필이 연주하는 생음악에 맞춰 공개공연을 펼친 것이다. 25개국 출신인 이들 중의 상당수는 자신감 결여 내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차츰 음악과 춤이 빚어내는 예술의 힘과 삶의 환희를 온몸으로 실감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기적에 가까운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참가자 중 반항아 기질이 강했던 3명에 대한 집중취재, 그리고 사이먼 래틀, 로이스턴 말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변화과정이 생생하게 수록되었는데, 한글자막이 제공되는 다큐멘터리(100분) 외에 무용공연 실황(40분)과 베를린 필의 순전한 관현악 연주(40분)가 보너스로 수록되었다.

[보충자료]

○ 로이스턴 말둠(1943~)은 영국 태생의 안무가다. 그러나 무대와 객석이 분리된 상태로 공연하는 것보다는 일반인을 위한 워크숍 등을 진행하면서 모두가 함께하는 댄스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관심이 많다. 예컨대 1980년대 이후에는 특정 무용단의 예술감독보다는 일정한 지역에서 무용관련 책임자로 일하는 것을 더 보람있게 여기고 있다.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의 가난한 지역과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춤을 통한 삶의 재발견을 설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베를린 프로젝트도 그중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1913년 초연 당시부터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발레음악 <봄의 제전>은 두 장면으로 구성된다. 때는 고대 러시아. 제1부 대지예찬 '낮'은 새싹이 움트기 전인 봄의 들판에 많은 남녀들이 모여서 바야흐로 동면에서 깨어나는 봄의 대지에 감사드린다. 이윽고 고승과 장로들이 등장하여 몇몇 처녀를 제물로서 바친다. 그때 찬란히 빛나는 태양을 보고 태양신에게도 바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제2부 제물 '밤'은 황량한 들판 가운데 젊은 남녀들이 춤을 추고 있다. 장로들이 그 가운데 한 처녀를 골라낸다. 선출된 처녀는 환희의 춤을 추는데 어느덧 법열은 광란으로 바뀌어 드디어는 지쳐서 죽는다. 장로들은 굳어져 버린 그녀의 육체를 높이 쳐들어서 그녀가 태양의 신부가 되었음을 기뻐한다.

OPUS ARTE

OpusArte DVD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OA 1017D

베르디: 가면무도회

최고의 실력과 테너 마르셀로 알바레즈가 열연한 베르디 중기 걸작

<가면무도회>는 '테너의 오페라'다. 전통적인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테너는 소프라노의 상대역이요, 남자 주인공이기는 해도 성급한 판단으로 서두르는 바람에 비극을 초래하는 미성숙한 인격체로 그려지곤 한다. 베르디도 그런 오페라를 섭렵한 후에 <가면무도회>를 작곡했는데, 보스턴 총독 리카르도는 부하의 아내 아멜리아를 사랑하는 걱정애 사로잡히지만 이윽고 그 열정을 힘겹게 통제하려는 성숙한 주인공의 모습을 변화한다. 이전 오페라의 테너들과 달리 어른스런 남자로 진화하는 진정한 전환점이 된 오페라인 것이다. 실력과 표현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정통파 테너로 인정받는 아르헨티나의 마르셀로 알바레즈가 리카르도 역으로 나섰다. 벨칸토로 다져진 미성과 대형가수의 파워를 겸비한 알바레즈의 숨씨는 파바로티와 도밍고 등 전설적 선배에 견줄 만하다. 아멜리아 역의 비올레타 우르마나는 메조소프라노로 출발한 가수답게 풍부한 성량과 진솔한 연기로 베르디 중기작의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테아트로 레알 마드리드의 2008년 9월 실황이며 동 극장을 이끄는 거장 헤수스 로페스 코보스가 지휘한다. 이탈리아의 영화감독이자 극장연출가이자 대본작가이기도 한 마리오 마르토네는 극의 어두운 분위기를 잘 살려냈다.

[보충자료]

○ 베르디 오페라는 몇 개의 기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초기는 벨칸토 오페라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출세작 <나부코>를 위시하여 <에르나니>, <맥베스>등이 유명하다. 벨칸토의 영향이 남아 있지만 한층 원숙한 필치로 다듬어진 이행기에는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같은 가장 인기 높은 오페라들이 속한다. 중기는 벨칸토를 넘어 베르디 고유의 특징이 꽃피우는 시기로서 <가면무도회>, <운명의 힘>, <돈 카를로>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때부터 테너의 역할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서 원숙한 인격체로 진화하는 것인데 <가면무도회>야말로 그 전기를 마련한 작품이다. 후기는 마지막 세 작품인 <아이다>, <오텔로>, <팔스타프>가 차지하고 있다.

○ 오페라의 본고장 유럽 오페라 계에서 현재 가장 인기 높은 테너는 롤란도 비야손, 후앙 디에고 플로레스 같은 아직 30대의 젊은 스타들이다. 그러나 오페라 전문가들은 마르셀로 알바레즈(1962~)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도니체티와 벨리니로 출발하여 지금은 베르디와 푸치니, 프랑스 오페라까지 망라하는 폭넓은 레퍼토리의 소유자이자 발성법이나 성량, 표현력에 이르기까지 쓰리 테너를 잇는 대형 가수의 면모를 두루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공부했으나 가업을 잇기 위해 한동안 노래를 떠나 있다가 뒤늦게 공부를 재개했고, 유럽으로 건너와 단시간에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Opus Arte DVD OA 1020D

카발리: 오페라 〈사랑에 빠진 헤라클레스〉

‘바로크 오페라의 푸치니’ 카발리의 가장 휘황찬란한 오페라

초기 바로크 오페라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라면 그의 후계자이자 대중적 인 숨결을 불어넣은 이가 프란체스코 카발리(1602~1676)다. 그래서 혹자는 “몬테베르디가 바로크 오페라의 베르디라면 카발리는 바로크 오페라의 푸치니에 해당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에르콜레 아만테〉는 ‘사랑에 빠진 헤라클레스’란 뜻으로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와 스페인 공주 마리아-테레제와의 결혼 축하극으로 주문받은 것이다. 작곡이 늦어져 결국 미리 작곡한 〈일 세르세〉가 대신 공연되었고 〈에르콜레 아만테〉는 2년 후인 1662년에 7천명의 프랑스 왕족과 귀족 앞에서 초연되었다. 바로크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호화찬란하면서도 카발리의 특기인 대중적인 재미가 살아있는 작품이다. 미국의 쌍둥이 연출가 올든 형제의 한사람인 데이비드 올든은 바로크 오페라를 포스트 모더니즘 방식으로 구현하는 독특한 워트로 유명한데, 이번 연출에서는 ‘뽕’ 근육의 우람함과 엄청난 굵으로 키를 늘린 헤라클레스를 등장시키는 등 그 유머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옛 음악을 현대 청중에게 명쾌하게 전달하는 재능이 뛰어난 이보르 볼튼이 지휘한 2009년 네덜란드 오페라 실험이다. 이탈리아의 미남 바리톤 루카 피사로니가 영웅성과 희극성을 겸비한 헤라클레스 역을 맡았다.

[보충자료]

○ 이탈리아의 작곡가 프란체스코 카발리(1602~1676)는 베네치아의 후견인이었던 페데리코 카발리의 성을 따라 고친 이름이다. 1617년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가 음악감독을 맡고 있던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대성당의 성가대 가수가 되었다. 1668년부터 그곳의 음악감독이 되었고, 유럽 오페라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디도네〉(1641)는 그의 가장 흥미로운 작품이고 1646년 파리에서 공연된 〈에지스토〉는 프랑스 양식과 이탈리아 양식 간의 경쟁을 낳기도 했다. 극음악 작곡가로서 그는 소규모 현악 오케스트라를 사용했으며 숙련된 합창단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독창자들이 함께 부르는 곡은 많이 쓰지 않았지만 그의 작품은 때로는 다카포 부분을 결들인 형식적인 레치타티보 아리아의 시작을 보여주기도 했다. 화려한 의상과 사치스러운 무대 장치를 사용해서 오페라의 평탄한 느낌을 보완했는데 이것들은 극적인 힘과 유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공연되기는 했지만 그의 오페라는 대개 17세기 베네치아에서 성행하던 대중 오페라 극장을 위해 특별히 작곡된 것들이었다. 42편의 오페라 가운데 27편의 오페라가 산마르코 대성당 박물관에 필사본으로 소장되어 있으며 최근에 공연, 녹음, 출판을 통해 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고 있다.



Opus Arte DVD OA 1033D

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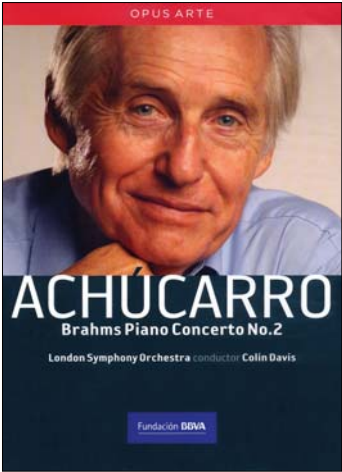
바그너의 성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2009년 개막 프로덕션

바그너는 바이에른의 젊은 국왕 루트비히 2세의 후원을 받아 바이로이트에 자신만의 오페라를 공연하는 극장을 지었고 지금도 이곳은 여름마다 페스티벌이 열려 전 세계 바그네리안이 찾는 일종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그 음악적 수준이야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각 프로덕션의 연출은 향후 오페라 연출계의 흐름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수준 높고 실험적인 도전이 많은데, 2009년 페스티벌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크리스토프 마르탈러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도 그러하다. 시니컬한 풍자기인 스위스 출신의 마르탈러는 이 ‘에로스와 죽음의 오페라’를 점점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가는 ‘노린침몰’로 묘사했다. 각 막의 무대는 기본적으로 같지만 막이 진행될수록 무대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3막은 지하실로 꾸민 것이다. 막마다 주인공의 의상과 분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그 유명한 이졸데의 ‘사랑의 죽음’은 그 어떤 연출보다도 인상적으로 처리되었다. 바그너 테너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미국의 로버트 딘 스미스(트리스탄), 바그너 소프라노의 산실인 스웨덴의 이레네 테오린(이졸데)가 운명적인 비극의 주인공을 노래하고 바그너의 대가인 거장 페터 슈나이더가 지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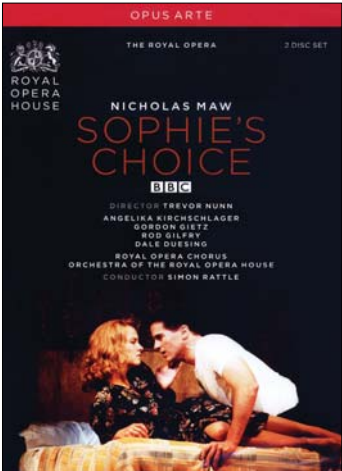
[보충자료]

○ 크리스토프 마르탈러(1951~)는 스위스 출신이며 원래 플루트와 오보에를 공부한 음악가 출신이다. 지금도 연출가이자 음악가로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가 파리에서 연출한 〈피가로의 결혼〉(오페스 아르테의 DVD로 출시)는 극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웨딩숍에서 벌어지는 일로 꾸밈을 뿐 아니라 독특한 경력의 친구를 무대 위에 내세워 이상한 방식으로 레치타티보를 반주하도록 함으로써 독창적이라는 찬사와 오점투성이라는 혹평을 동시에 받았다.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도 비슷하다. 무대장치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침몰’이라는 흐름을 명확히 했고, 인물들의 관계는 느낌의 미학을 반영하여 천천히, 정교하게 그려냈다. 2005년 이 프로덕션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는 관객석의 야유가 찬사보다 컸다고 하지만 이제는 바이로이트 개막작으로 선정될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객석의 환호가 일부의 야유를 압도하게 되었다.

○ 소프라노 이레네 테오린은 비르기트 닐손, 아스트리드 바르나이, 니나 스템메 등 바그너 오페라의 최고 소프라노를 배출한 스웨덴 출신이다. 2008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이졸데 역으로 데뷔했으며 현재 가장 각광받는 바그너 소프라노의 한 사람으로 부상했다. 미국의 로버트 딘 스미스(1956~)는 바리톤으로 출발했다가 테너로 전향하면서 훨씬 큰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바그너를 위시한 독일 오페라의 주역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Opus Arte DVD OA 1022D



Opus Arte DVD OA 1024D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

쇼팽, 스크랴빈, 알베니스의 피아노 소품들

호이킨 아추카로(pf)/ 콜린 데이비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OpusArte Catalogue 포함]

스페인의 국보급 피아니스트 호이킨 아추카로의 영국데뷔 50주년 기념 영상물.

1936년 스페인 빌바오에서 태어난 호이킨 아추카로는 1959년 영국의 리버풀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음악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해 런던 심포니와 더불어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랩 소디로 센세이션날 영국 데뷔 무대를 가진 이후 60여 개국을 오가며 200개 이상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무대를 가지는 등의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1996년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 국왕은 그에게 기사 작위를 수여했으며, 2000년 유네스코는 그를 'Artist of Peace'로 임명하였다. 본 영상은 지난 2009년 5월 런던 자우드 홀에서 녹화된 것으로,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와 협연한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수록하였다. 피아노가 포함된 교향곡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작품의 당당한 스케일과 풍부한 서정은 두 노대가의 심원한 예술적 해안을 통해 한층 더 감동적으로 그려졌다. 메타, 도밍고, 래틀 등의 인터뷰가 포함된 아추카로의 연주 이력에 관한 42분 분량의 다큐멘터리와 프라도 미술관에서 녹화된 37분 분량의 피아노독주 연상이 보너스로 함께 제공된다.

니콜라스 모: 소피의 선택

소설, 영화로 유명한 <소피의 선택>을 래틀 지휘의 오페라로 만나다

<소피의 선택>은 앨런 파쿨라 감독이 만든 영화(1982)로 잘 알려져 있다. 메릴 스트립은 이 영화로 골든 글로브, 아카데미, 전미 비평가협회의 여우주연상을 모조리 휩쓸었다. 그러나 이 영화의 원작인 윌리엄 스타이런의 소설(1979) 또한 미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명작이다. 1947년 뉴욕의 브루클린. 작가 지망생 스팅고는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미모의 폴란드 여인 소피와 그녀의 동거남 네이션을 만난다. 그는 소피에게 첫눈에 반하고, 지적인 네이션에게도 끌린다. 소피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다. 수용소 이송 도중 독일군 장교가 두 아이 중 하나는 살려주겠다며 가스실에 보낼 아이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소피는 딸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아들조차 잃어버렸다. 게다가 지금 함께 사는 네이션은 발작적 정신병의 소유자였으니... 영국의 니콜라스 모(1935~2009)는 2002년에 이 오페라를 만들었다. 조성에 구애받지 않는 모더니스트이지만 신낭만주의자로 불리는 작곡가의 따스한 휴머니즘이 돋보인다. 그의 음악에 깊이 경도된 사이먼 래틀이 지휘한 초연 실황이며 아름다운 메조소프라노 안젤리카 키르히슐라거가 타이틀 롤을 부른다.



Opus Arte DVD OA 1021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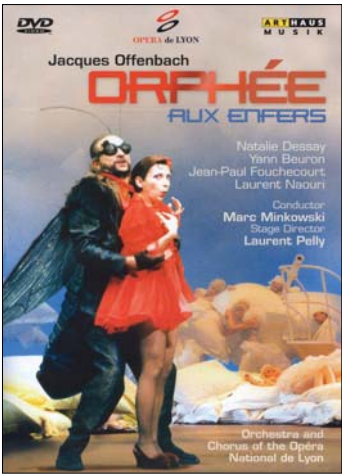
베르디: 팔스타프

시트콤 분위기의 프로덕션으로 탄생한 베르디의 걸작 희극

베르디는 신중하고 인생의 비극적인 면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마지막 작품을 희극으로 장식했다니! 그런데 이 희극은 덜 웃기고, 예상외의 반전도 없이 그저 80세의 노인이, 그것도 권력의 덧없음과 사랑의 비극을 평생토록 그려온 작곡가가, 아무런 속박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로 인간사를 바라보는 경지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최고의 희극극인데도 그 무게감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영국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의 최신 <팔스타프>는 대가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부담을 벗어던졌다. 찰스 왕세자의 초상화가 상징하듯이 배경을 현대로 바꾸었으며, 색채감 넘치는 무대와 재기발랄한 의상이 판치는 분위기 속에서 마치 요즘 TV 시트콤을 보는 것 같다. 온갖 모순을 생생하게 풍자하는 고급 코미디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아온 <팔스타프>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글라인드본을 이끄는 최고의 스타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가 지휘를 맡고 있으며 희극극에서 한층 더 중요한 앙상블의 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출연자들이 감칠맛 나는 하모니를 선사한다. 2009년 6월 실황.

[보충자료]

○ 베르디는 곧잘 비교대상이 되는 바그너와 달리 극장, 청중과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맥베스>에서 혁신을 선보였지만 그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을 보자 인기 3부작인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에서는 대중성을 무기로 파고들었다. 다음엔 <시몬 보카네그라>로 과거의 전통에서 벗어나 연극적이고 인물 묘사가 강조된 오페라를 써 보았는데 역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자 <운명의 힘>, <가면무도회>에서는 희극적 감초를 집어넣음으로써 청중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돈 카를로스>나 <아이다>같이 최고의 휴먼 드라마에 쓸데없이(?) 화려한 장면을 삽입한 것도 베르디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보다는 청중과 타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베르디가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마지막 두 작품뿐이었다. 이때는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이탈리아 반도에 몇 명 남아있지 않을 나이였고 감히 비판할 사람도 없었었다. 그러자 비로소 자신이 악보로 그려내고 싶었던 것들, <오텔로>에서는 조금의 화려함도 없이 목작하게 숨통을 조여 가는 심리극을, <팔스타프>에서는 희극이라는 것이 그저 폭소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등등의 무미함을 알려주는 것뿐이라고 설파하기에 이른 것이다. 줄거리도 마치 사람 사는 것이 겨우 이런 식에 불과할 뿐인데 그걸 알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것 같다. 또한 어리석은 팔스타프에게는 '악의 없음'을 선물하여 마치 베르디 자신이 팔스타프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이것이 <팔스타프>가 최고의 희극일 수 있는 비결이다.



Arthaus DVD 107 105

오펜바흐: 지옥의 오르페우스 (천국과 지옥)

나탈리 드세이(우리디스)/ 안 부롱(오르페)/ 장 폴 푸세쿠르(플뤼통)/ 로랑 나우리(쥐피테르) 외
마크 민코프스키/ 리옹 국립 오페라

나탈리 드세이의 상큼 발랄한 매력을 확인시켜주는 매력만점의 DVD

우리나라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타이틀로 익숙한 자크 오펜바흐 최고의 히트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를 담은 본 DVD는 1997년 리옹 국립오페라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바로크 오페라만큼이나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도 열성적인 마크 민코프스키가 지휘봉을 잡은 본 공연은 막 세계적인 프리마돈나로 부상하던 시점의 나탈리 드세이의 싱그러운 매력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몬테베르디와 글록의 오페라로도 유명한 그리스의 고전을 코믹하게 마음껏 비틀어놓은 오펜바흐의 본 작품은 칸캉의 대명사와 같은 지옥의 갯벌의 선율이 너무나도 친근한 작품이기도 하다. 드세이의 남편인 바리톤 로랑 나우리와 정상급 오토 콩트르 장 폴 푸세쿠르가 각각 맡은 쥐피테르와 플루토의 몸을 사리지 않는 코믹한 열연도 인상적이며, 그리스의 신화를 현대적인 배경 속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놓은 로렝 펠리의 감각적인 연출도 대단히 흥미진진하다. 춤과 노래와 코미디가 한껏 어우러진 프랑스 오페레타의 떠들썩한 난장을 만나보시라.

[보충자료]

○ '지옥의 오르페'는 그리스의 고전인 오르페오와 유리디체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각색한 것이다. 오르페(오르페우스)는 리라대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직업음악가이며, 아름다운 부인 우리디스(유리디체)가 있음에도 늘 다른 아낙네들에게 군침을 흘린다. 우리디스 역시 맞바람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린다. 우리디스는 아리스테라는 미청년으로 변신한 플뤼통과 불륜행각을 벌이다가 저승으로 끌려가고, 오르페는 자유를 기뻐한다. 하지만 여론의 못매를 맞고 어쩔 수 없이 쥐피테르(주피터)에게 우리디스를 살려줄 것을 간청한다. 하지만 쥐피테르 역시 우리디스의 미모에 혹하게 되고, 자신의 여자로 만들 궁리를 한다. 오르페는 우리드스를 이끌고 지옥을 빠져나가게 되나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쥐피테르가 던진 천둥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고 만다. 결국 오르페는 우리디스로부터 벗어나고, 쥐피테르 역시 우리디스를 가지게 되는 황당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 이 시대 최고의 오페라 히로인으로 각광받고 있는 나탈리 드세이는 1965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다. 원래이름은 Nathalie Dessaix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발음하기 쉽도록 지금의 철자(Natalie Dessay)로 이름을 바꿨다. 발레리나와 배우를 꿈꿨지만, 자신의 성악적 재능을 발견한 이후 보르도 국립음악원에서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았다. 빈 슈타츠오페에서 주창한 모차르트 국제 성악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후 리옹 국립오페라, 바스티유 오페라, 빈 슈타츠오페 등을 거치면서 올림피아, 밤의 여왕, 불론데 등의 콜로라투라 배역들로 각광을 받았다. 2005년 성대수술이라는 큰 고비를 넘긴 이후 고음역대를 피하고 보다 무게 있는 배역 쪽으로 활동방향을 바꿔나가고 있다.



Arthaus DVD 101 391

로시니: 이탈리아의 터키인

탈출 오페라를 역으로 패러디한 로시니 희극 오페라의 또 다른 걸작

모차르트의 <후궁 탈출>과 로시니의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은 당대에 크게 유행한 탈출 오페라의 전형인데, 이슬람 세계에 붙잡힌 여인이 태수의 사랑을 뿌리치고 탈출한다는 것이 기본공식이다. 그런데 아이디어 넘치는 천재 로시니는 이를 뒤집어서 이탈리아를 선망하는 이슬람 태수가 나폴리로 찾아와 자유분방한 유부녀와 사랑에 빠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냈으니 그것이 <이탈리아의 터키인>이다. 게다가 소재 고갈에 빠진 대본작가가 현실 속에서 만난 주인공들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쓴다는 기발한 구성은 물론 여주인공 피오릴라의 과감한 애정행각은 요즘 기준으로도 놀랍다. 과연 로시니 말고 누가 이런 오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2009년 제노바의 카를로 펠리체 극장 실황인 본 영상물에는 중견 베이스바리톤 시모네 알라이모가 태수로, 그리스의 젊은 소프라노 미르토 파파타니시우가 상대역 피오릴라로 나섰다. 로시니 희극의 히로인은 대개 메조소프라노지만 피오릴라는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 양쪽에 개방된 역인 것이다. 에지스토 마르쿠치의 연출은 오페라 부파의 전통에 입각하여 아름다우면서도 유머러스한 무대를 창조해냈다.

[보충자료]

○ [줄거리] (1막) 오페라 대본작가인 시인이 소재가 고갈된 것을 고민하다가 집시들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들겠다고 생각한다. 또 아름다운 피오릴라와 그녀의 늙은 남편 돈 제로니오도 등장시키겠다고 맘먹는다. 해안으로 산보 나온 피오릴라는 마침 도착한 터키 태수 셸림에게 반하는데, 이는 셸림도 마찬가지다. 피오릴라의 숨겨놓은 애인 돈 나르치조는 이런 상황에 당황한다. 한편 집에 돌아온 제로니오는 아내가 터키 태수와 커피를 마시는 것에 놀란다. 결국 부부는 말다툼을 벌이지만 아내의 현란한 말솜씨에 남편이 꼬리를 내리고 만다. 한편 셸림은 해안가에서 예전에 사랑했던 집시 여인 차이다와 재회하고 이를 본 피오릴라는 분개한다. (2막) 셸림은 제로니오에게 터키의 풍습처럼 아내를 팔라고 제안한다. 제로니오는 이탈리아에서는 여자를 사러 온 녀석은 코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풍습이 있다고 응수한다. 두 사람은 다투고 셸림은 어쩔 수없이 납치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피오릴라는 셸림에게 두 여자 중 하나를 고르라고 요구하고 셸림은 망설이다가 피오릴라를 택하여 가면무도회 도중에 도망치기로 한다. 그러나 연회 도중에 변장 때문에 서로를 잘못 알아보고 헛갈려하다가 결국 셸림은 차이다를 데리고 나간다. 셸림을 놓친 피오릴라는 남편으로부터는 이별 요구를 받고 처량하게 집을 나서지만 선량한 남편의 아량으로 다시 땀어진다. 또한 셸림은 피오릴라 대신 기꺼이 차이다와 함께 터키로 떠난다.



Arthaus DVD 101 393

푸치니: 서부의 아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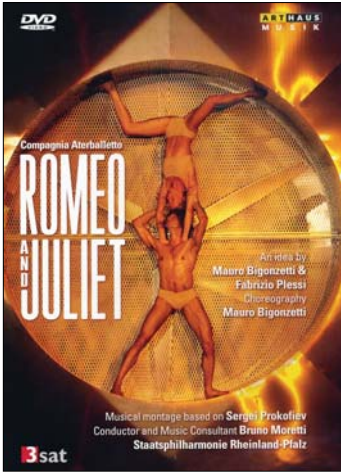
여장부형 주인공 미니의 캐릭터를 제대로 부각시킨 최초의 영상물

푸치니는 이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나비부인〉은 일본, 최후의 유작 〈투란도트〉는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한다. 동양은 아니지만 그를 자극한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있었으니 바로 미국 서부시대요, 이를 다룬 오페라가 〈서부의 아가씨〉다. 〈나비 부인〉의 작가이기도 한 데이비드 벨라스코의 원작을 사용한 이 오페라의 주인공들은 술집을 운영하는 생활력 강한 여인 미니, 도적 두목임을 숨기고 그녀와 사랑에 빠진 딕 존슨, 그의 라이벌인 보안관 잭 랜스다. 1910년 뉴욕에서 초연된 오페라답게 근대적 화성과 연극적 사실성을 짙게 반영하느라 대중적인 인기작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그 작품성은 높이 평가받는다. 본 영상물은 푸치니가 수많은 오페라를 작곡한 토레 델 라고의 호반에서 매년 여름 펼쳐지는 푸치니 페스티벌의 2005년 실황이다. 푸치니 오페라의 최고 히로인인 다니엘라 데시가 음악적 파트너이자 실생활에서도 반려자인 테너 파비오 아르밀리아토와 공연한다. 야외공연임에도 효과적인 무대와 뛰어난 음질이 돋보이는데, 이전에 나왔던 이 오페라의 3종의 영상물의 딕 존슨 역을 모두 도밍고가 불러 미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이야말로 미니의 진면목을 제대로 구현한 최초의 영상물이 될 것이다. 알베르토 베로네시 지휘, 이반 스테파노티 연출.

[보충자료]

○ 이탈리아의 소프라노 다니엘라 데시(1957~)는 조국 밖에서의 공연을 피하는 편이므로 국제적인 지명도는 상대적으로 덜 높은 편이지만 본고장에서는 최고로 꼽히는 소프라노다. 특히 부드러운 목진한 스피노의 소리를 지니고 있어서 카리스마 넘치는 역으로 최고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실제의 반려자인 테너 파비오 아르밀리아토와의 공연만을 고집하는 편인데, 청아한 음색의 소유자인 아르밀리아토와의 조합은 어쩌면 마리아 칼라스와 주세페 디 스페파노 콤비를 연상시키는 면도 있다. 원로연출가 프랑코 제피렐리가 똥똥하다고 지적한 것에 반발하여 로마 오페라의 〈라 트라비아타〉를 거부했다는 소식도 2010년 벽두에 외신을 타고 전해진 바 있다. 그러나 사실 데시는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이며 65킬로그램이라는 몸무게는 묵직한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체중이라고 주장했다.

○ 〈서부의 아가씨〉의 주인공 미니는 ‘여장부형’이다. 푸치니의 다른 오페라로 보자면 〈마농 레스코〉나 〈라 보엠〉, 〈나비 부인〉과 다르고 〈토스카〉의 주인공과 닮았다고 할 것이다. 사형당할 위기에 처한 연인을 구하고자 말을 타고 권총을 든 채 달려오는 피날레 장면은 특별히 그러하다. 그러나 이때부터 미니는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오랫동안 미니에게 신세를 졌던 사내들은 그 애절한 호소에 마음이 움직여 존슨의 목에 걸었던 올가미를 벗겨주는 것이다.



Arthaus DVD 101 399

프로코피에프: 로미오와 줄리엣

콤파냐 아테르발레토/ 브루노 모레티/ 슈타츠필하모니 라인란트-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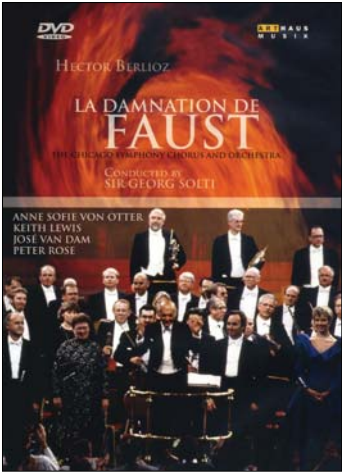
파격적인 현대무용으로 재창조된 프로코피에프의 걸작 발레음악

콤파냐 아테르발레토는 1977년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모던 발레단으로 군림해왔다. 1980년 벤저민 브리튼의 음악에 기초한 ‘시제결합’ (Consecutio Temporum)으로 유럽 무용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이후 지금까지 클래식발레에서 재즈댄스에 이르는 폭넓은 무용스타일을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현대무용의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해오고 있다. 1997년부터 이 단체의 예술 감독으로 활동해온 세계적인 안무가 마우로 비곤제티는 프로코피에프의 대표적인 클래식발레 작품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파격적인 모던발레로 변모시켰다. 셰익스피어의 오리지널 비극을 충실하게 재현했던 케네스 맥밀란, 누리에프슬링 등의 클래식한 안무들과 달리, 비곤제티는 젊은 연인들 사이의 뜨거운 애정과 이들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죽음에 포커스를 맞춘 추상적인 현대무용으로 이 작품을 재해석하였다. 프로코피에프의 음악 역시 지휘자 브루노 모레티에 의해 원래의 순서와 완전히 다르게 재배열되었다. 본 DVD는 2006년 10월 루트비히스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팔츠바우 극장에서 있었던 이 프로덕션의 독일 초연무대를 화면으로 옮긴 것이다.

[보충자료]

○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현대무용 안무가 마우로 비곤제티는 1960년 로마에서 태어났다. 로마 오페라극장 소속의 발레학교에서 조련을 받은 이후 1979년부터 이 극장의 메인 발레리노로 맹활약했으며, 1983년부터는 레지오 에밀리아 소재의 이 나라의 대표적인 현대무용단인 콤파냐 아테르발레토에 합류하여 현대무용 쪽으로 활동방향을 재정립하였다. 1990년 이 단체를 위해 자신의 첫 안무를 선보였으며, 1997년에는 이 무용단의 예술 감독 겸 수석안무가로 취임하였다. 2008년 크리스티나 보츨리니에게 예술 감독 자리를 넘겨주었지만, 여전히 수석안무가로서 이 무용단과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페르세파사’ (1997), ‘삼포’ (2001), ‘결혼’ (2002), ‘로시니 카드’ (2004), ‘로미오와 줄리엣’ (2006) 등이 그의 대표적인 안무작들이다.

○ 프로코피에프는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비극인 ‘로미오와 줄리엣’에 기초하여 에필로그가 덧붙은 3막의 클래식 발레작품을 완성하였다. 1935년 키로프 발레단의 위촉으로 오리지널 버전이 완성되었지만, 당시의 서슬 퍼런 문화검열로 인해 대중들에 공개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초연은 1938년 체코의 브루노에서 이뤄졌지만,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거친 이후 1940년 레닌그라드에서 레오니드 라브롭스키의 안무에 의한 키로프 발레단의 무대 이후 차이코프스키와 글라주노프의 로만틱발레의 전통을 계승한 20세기 발레의 걸작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다. 1965년 영국 로얄발레단을 위한 케네스 맥밀란의 프로덕션, 1977년 런던 콜리세움에서 초연된 루돌프 누리에프의 프로덕션 등이 오소독스한 안무들로 사랑받았다.



Arthaus DVD 102 023

베를리오즈: 파우스트의 겁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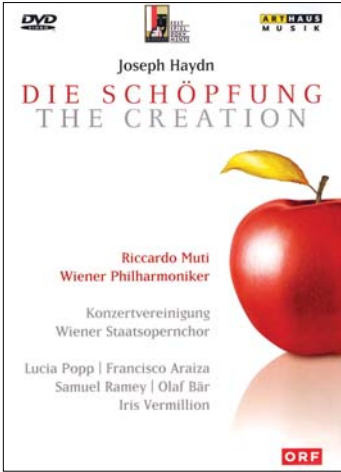
오페라에 준하는 일대 서사시 <파우스트의 겁벌>의 결정판

괴테의 대작 <파우스트>를 오페라로 작곡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다. 그래서 본바닥의 독일 작곡가들은 자국 문화계의 비평에 미리 겁먹어 아예 기권해버렸고, 프랑스 작곡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베를리오즈가 그 첫 주자였으나 심혈을 기울인 <파우스트의 겁벌>을 현명하게도 오페라라 칭하지 않고 '극적 전설'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꾸어버렸다. 그래서 1846년 자신이 지휘한 초연 당시에도 무대극이 아니라 콘서트 형식으로 공연되었다. 무대상연 형식의 초연은 작곡가 사후인 1893년 몬테카를로에서 이루어졌다. 전체 4부 구성이며 괴테 원작의 재부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에도 이 거대한 작품은 콘서트 공연과 무대 공연이 병존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무대 상연을 강요하지 않았으므로 콘서트 형식으로 했을 때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 전설적 상황이 게오르크 솔티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에 테너 케네스 루이스(파우스트),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마르그리트), 베이스 호세 반 담(메피스토펠레)과 공연한 것이다. 특히 베를리오즈는 이 작품의 시작을 헝가리로 옮겨놓았는데, 바로 솔티가 헝가리 출신인지라 한층 더 치열하게 몰입한 숨씨를 보여주고 있다.

[보충자료]

○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겁벌>은 자신이 젊은 날에 작곡한 '파우스트의 8개의 장면' (1828~29)을 기초로 삼았다. 줄거리 중심이 아니라 작곡자의 창의력을 자극한 몇 개의 장면, 즉 색채적 묘사에 적합하거나 관현악적인 상상력을 중흥으로 구사할 수 있는 '회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음악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작곡했는데 캐릭터 묘사는 주인공 세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또 거의 모든 장면에서 음악적 발성에 적합하도록 원시의 내용에 변화를 주었다. 오페라, 드라마, 교향곡, 오라토리오, 소설, 신비극의 요소가 총망라되었는데, 작곡자는 오페라가 아니라 '극적 전설'이라는 분류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불렀으며 현대적 음악극의 선구적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 <파우스트의 겁벌>은 오페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오페라로 작곡된 것으로는 이보다 13년 후에 만들어진 샤를 구노의 <파우스트>(1859)가 가장 유명하다. 이탈리아 작곡가의 것으로는 베르디 후기의 대본작가로도 유명한 아리고 보이토의 <메피스토펠레>(1868)이 대표적이다. 악마 메피스토펠레를 타이틀 롤로 내세웠지만 파우스트, 마르그리트도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비중이 있다. 그토록 고대하던 독일어 오페라는 1925년에 나왔다. 그러나 순수한 독일인이 아니라 이탈리아 혈통인 페루치오 부조니가 작곡한 <파우스트 박사>가 그것이다.



Arthaus DVD 101 479

하이든: 천지창조

루치아 폼(sop)/ 프란시스코 아라이자(te)/ 사무엘 래미(bass)/ 올라프 베어(br)/ 빈 국립오페라 합창단/ 리카르도 무티/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최고의 가수들이 감동적으로 노래한 하이든의 위대한 오라토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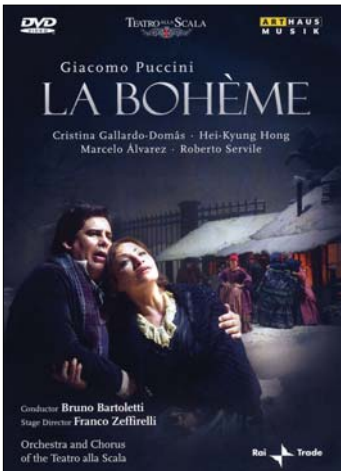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헨델의 '메시아'와 더불어 오라토리오 장르를 대표하는 양대 걸작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하이든은 잘로몬의 초청으로 런던에 체류하던 기간 중 '메시아' 공연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이 공연에서 받았던 엄청난 감동이 '천지창조'를 완성케 한 원동력이 되었다. 본 DVD는 지난 1990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기간 중에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당시 유수의 언론들을 통해 크게 호평을 받았던 이 역사적인 공연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리카르도 무티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와 빈 필하모닉의 일사불란한 합주 위로, 정상급 솔리스트들이 하이든의 이 위대한 걸작을 아름답게 노래해 나간다. 동화 속의 요정할머니와도 같은 친근한 모습으로 천사 가브리엘과 이브를 함께 노래했던 루치아 폼은 이로부터 3년 뒤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당대 최고의 모차르트 테너로 각광받았던 프란시스코 아라이자의 감미로운 우리엘, 베이스 사무엘 래미가 강건하게 노래한 라파엘, 당시 신성으로 급부상하던 무렵의 올라프 베어의 부드러운 미성으로 노래한 아담 등이 이 오라토리오의 감동을 한층 더해준다.

푸치니: 라보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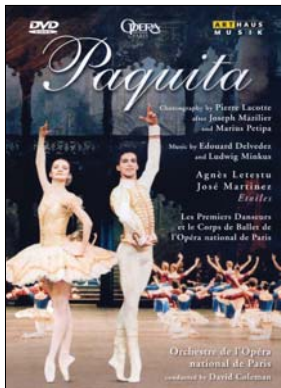
홍혜경이 뮤제타를 노래한 라 스칼라의 2003년 최신 실황

극사실주의적 연출로 유명한 프랑코 제피렐리는 1963년부터<라보엠>을 연출했는데, 이 영상물에 수록된 2003년 2월의 라 스칼라 실황은 1981/82시즌의 메트로폴리탄 프로덕션에 기초하고 있다. 작은 소품까지 세심하게 배려한 무대는 훈훈한 정감이 넘치는 이 오페라와 잘 어울리며 특히 눈썰인 3막의 정경은 가슴이 아리도록 감동적인 노래와 어우러져 엄청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제피렐리의 <라보엠>은 뮤제타 역에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뉴욕의 대표적 미미로 통하는 홍혜경이 굳이 뮤제타를 맡은 것은 그런 연유이다. 로돌포역의 마르셀로 알바레즈와 미미 역의 크리스티나 갈라르도-도마는 남미 출신의 세계적 오페라 가수들이며 너무나도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전통적인 명반에 결코 못지않은 최고의 연주를 이끌어냈다. 라 스칼라 극장장이 보수 중인 시점 이어서 첨단 시설의 아르침볼디 극장에서 공연된 것이며 스페셜 피쳐로 <라보엠>에 대한 제피렐리의 회상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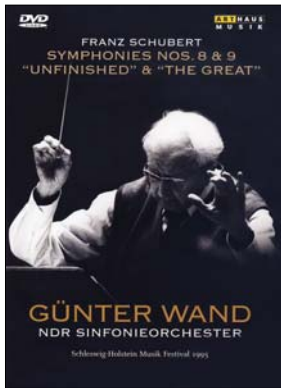
[TDK DVUS-OPBOH 동일영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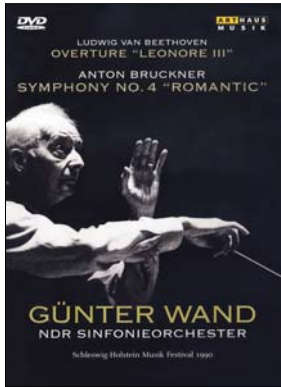
Arthaus DVD 107 119



Arthaus DVD 107 005



Arthaus DVD 107 123



Arthaus DVD 107 121

파키타

100년 만에 전막으로 복원된 스페인 배경의 고전 발레 명작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파키타>는 원래 19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초연된 낭만 발레였지만 러시아로 전해진 다음에 마리우스 프티파가 덧붙인 고전 발레 스타일의 피날레 덕분에 유명해졌다. 이 피날레는 요즘도 갈라 공연에 포함되는 가장 인기있는 레퍼토리의 하나이지만 원작은 완전히 잊혀진 상태였다. 파리 오페라 발레의 복원전문 원로 안무가 피에르 라코트는 프랑스에서 초연된 원형을 재현하고자 1세기 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전막 공연에 참여한 발레리나와 인터뷰했던 옛 기억과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108분짜리 전막 발레로 되살렸다. 물론 유명한 피날레 장면도 프티파의 안무에 의거하여 덧붙였다. 파리 오페라 발레의 유명한 부부 무용수인 아녜스 레테스튀(파키타)와 호세 마르티네즈(루시앙)이 주역을 맡은 2003년1월 최신 실황이며 아름다운 화질과 음질을 보장하는 영상물이다

[TDK DVUS-BLPAQM 과 동일 영상물]

권트반트 – 슈베르트 교향곡 8, 9번

영상으로 남겨진 위대한 거장의 마지막 불꽃들

2002년 2월 14일 90세의 일기로 사망한 20세기 마지막 독일거장 권터 반트. 노쇠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찬연히 불타올랐던 그의 위대한 예술혼을 이 송고한 영상물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영상물은 뤼벡에서 개최되는 슐레스비히-홀스타인 페스티벌에서의 실황으로 1995년(슈베르트 8,9번)의 기록들이다. 후기의 영상으로 옮겨갈수록 거장의 육체적 노화가 점차적으로 심화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나, 악단 전체를 휘어잡는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나이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있는 것처럼 보인다.

[TDK DVWW-COWAND6 과 동일 영상물]

권트반트 – 브루크너 교향곡 4번

영상으로 남겨진 위대한 거장의 마지막 불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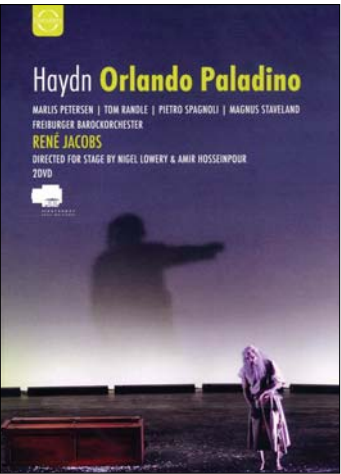
2002년 2월 14일 90세의 일기로 사망한 20세기 마지막 독일거장 권터 반트. 노쇠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찬연히 불타올랐던 그의 위대한 예술혼을 이 송고한 영상물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브루크너의 교향곡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4번을 보여준다. 이번 영상물들 역시 뤼벡에서 개최되는 슐레스비히-홀스타인 페스티벌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1990년 브루크너 4번의 기록이다. 후기의 영상으로 옮겨갈수록 거장의 육체적 노화가 점차적으로 심화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나, 악단 전체를 휘어잡는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나이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있는 것처럼 보인다.

[TDK DVWW-COWAND5 과 동일 영상물]



Medici Arts DVD

www.euroarts.com



EuroArts DVD 2057788 [2DVDs]

하이든: 성기사 오를란도

마를리스 페테르센(안젤리카)/ 톰 란들(오를란도)/ 피에트로 스파놀리(로도몬테)/ 임선혜(유릴라)/ 알렉산드리아 페다찬스카(알치나)/ 르네 야콥스/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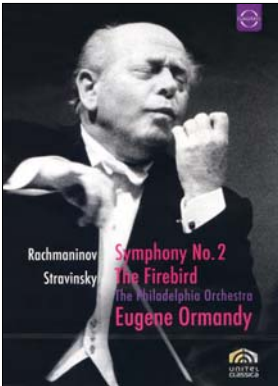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고 임선혜가 출연한 하이든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

하이든의 서거 200주기였던 2009년의 5월, 베를린 슈타츠오페에서 있었던 화제의 공연실황을 수록한 DVD. 여러 모차르트의 걸작들을 통해 고전 오페라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각광받고 있는 당대 연주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르네 야콥스가 지금껏 과소평가되고 있는 하이든의 오페라들도 모차르트의 작품들 못지않은 빼어난 매력을 머금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1782년 에스테르하지 궁전에서 초연되었던 3막 오페라 '성기사 오를란도' (Orlando Paladino)는 하이든이 남긴 14편의 오페라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비발디, 스카를라티, 쾰리, 헨델 등이 오페라를 남겼던 아리오스토의 유명한 서사시 '광포한 오를란도' (Orlando Furioso)에서 내용을 빌려왔다. 르네 야콥스의 총애를 받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소프라노 임선혜가 비중있는 배역인 유릴라로 상큼한 매력을 과시하며, 여주인공 안젤리카를 노래한 미모의 소프라노 마를리스 페테르센, 타이틀 롤의 미치광이 캐릭터를 열연한 톰 란들을 비롯한 모든 출연진들이 연기와 노래 양쪽 모두에서 고른 활약을 보여준다. 작품의 코믹한 분위기를 잘 살려낸 니이젤 로우리의 연출도 맛깔스럽다.

[보충자료]

○ 1782년 초연된 하이든의 오페라 '성기사 오를란도'는 루드비코 아리오스토의 유명한 서사시 '광포한 오를란도' (Orlando Furioso)의 내용을 바탕으로 눈치아노 포르타가 마련한 리브레토에 곡을 붙인 것이다. 오를란도는 원래 중세의 대표서사시인 '롤랑의 노래'에 등장하는 샤를마뉴의 기사 롤랑(오를란도는 롤랑의 이탈리아식 이름)과 동일 인물이지만, 아리오스토는 무슬림과의 전쟁에서 무용담 대신 일본에서 스코틀랜드를 넘나드는 기나긴 여정과 각종 마법인 요소들이 난무하는 오를란도의 연애사 쪽을 보다 부각시켜서 이 서사시를 만들었다. 오페라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기사 오를란도는 이교도 공주인 안젤리카에 반하나, 안젤리카에게는 연인 메도로가 있다. 오를란도는 짝사랑에 미쳐 이성을 상실하고 이 두 커플을 스토킹하기 시작한다. 오를란도의 광적인 집착을 벗어나기 위한 안젤리카와 메도로의 우여곡절이 이어지며, 마침내 오를란도는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관련된 여러 커플들이 연결되면서 해피엔딩으로 작품이 마무리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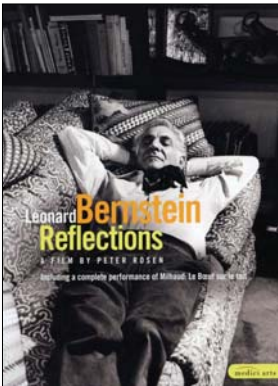
○ 소프라노 임선혜는 1998년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뒤 독일 칼스루에 음대로 유학하였다. 고음악계의 거장 헤레베헤에에 발탁된 이후 유럽 음악계 일선에서 맹활약 중이다. 특히 르네 야콥스, 윌리엄 크리스티, 지기스발트 쿠이겐, 파비오 비온디와 같은 시대악기 분야의 거장들과 꾸준히 작업하면서 이 분야 최고의 소프라노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Medici arts DVD 2072258



Medici arts DVD 2057338



Medici arts DVD 3078728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

감미로운 필라델피아 사운드의 극치,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1936년부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인연을 맺은 오먼디는 1980년까지 무려 반세기 가까운 긴 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필라델피아 사운드'를 완성시켰다. 1979년 오먼디의 8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특별한 콘서트 실황인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은 부드러운 질감과 화려한 색채감으로 대변되는 필라델피아 사운드의 진수를 보여준다. 라흐마니노프와 절친한 관계였던 오먼디는 이 교향곡을 특별히 아꼈으며, 수차의 레코딩을 통해 이 작품의 전도사로서 큰 몫을 담당했었다. 교향곡 2번은 오먼디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3악장의 감미로운 선율이 팝 가수 에릭 칼멘의 히트곡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이라는 곡에 차용되면서 작곡가의 인기작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라흐마니노프의 전매특허와도 같은 우수를 머금은 3악장의 아름다운 선율과 부드러운 필라델피아 사운드와의 환상의 만남은 이후에 등장한 그 어떤 연주들보다도 감동적이다. 1977년에 녹화된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 역시 필라델피아 사운드의 또 다른 특징인 화려한 색채감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다.

2008년 예루살렘 인터내셔널 챔버 페스티벌

브람스: 현악육중주 1번, 슈만: 피아노오중주, 모차르트: 피아노트리오 K.564 외
엘레나 바슈키로바(pf)/마이클 바렌보임(vn)/프란스 헬메르손(vc)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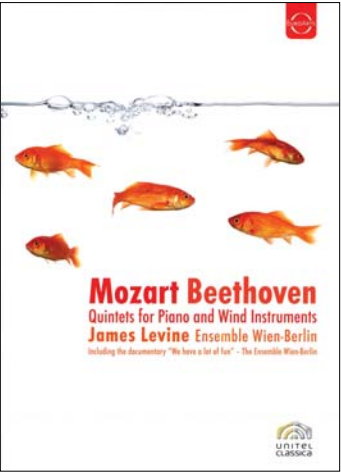
브람스의 현악육중주와 슈만의 피아노오중주를 담은 최고의 실내악 DVD

예루살렘 인터내셔널 챔버 페스티벌은 1998년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엘레나 바슈키로바에 의해 시작되었다. 본 DVD는 이 세계적인 실내악 제전의 10주년이었던 2008년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를 수록하였다. 페스티벌의 산파인 엘레나 바슈키로바 외에도 그가 다니엘 바렌보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바이올리니스트 마이클 바렌보임, 스웨덴의 정상급 첼리스트 프란스 헬메르손, 2001년 루빈시타인 콩쿠르 우승자인 러시아 피아니스트 키릴 게르스테인, 미국의 중견 첼리스트 게리 호프만,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의 플루트 수석 가이 에세드, 베를린 필의 악장인 가이 브라운스테인, 역시 베를린 필의 단원인 마델라인 카루초, 그리고 베를린 필의 클라리넷 수석이었으며 현재는 지휘자로도 활동중인 칼 하인츠 슈테판스 등의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브람스의 현악육중주와 슈만의 피아노오중주와 같은 인기작들 외에도, 힌데미트의 클라리넷사중주, 모차르트의 피아노트리오 K.564 등을 최고의 화질로 만날 수 있다.

레너드 번스타인 돌아보기

20세기 후반의 전방위 음악인 레너드 번스타인을 돌이켜 생각한다!

레니란 애칭으로 불리며 널리 사랑받았던 남자! 양키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으면서도 유럽 악단까지 평정한 유태계 미국인! 바로 레너드 번스타인(1918~1990)이다. 번스타인은 작곡가로서, 지휘자로서, 작가로서, 또 음악해설가로서 모조리 대성공을 거둔 천재였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고전적 명작을 내놓는가 하면 대담하고도 영적인 질문을 던진 정통 관현악곡으로, 열정과 통찰력이 돋보이는 지휘 솜씨로 20세기 음악계의 중심에 있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번스타인은 보스턴에서 성장한 어린 시절, 하버드 대학과 커티스 음악원에서 보낸 음악적 학습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프리츠 라이너, 드미트리 미트로플러스, 세르게 쿠세비츠키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뉴욕 필하모닉과 함께 교육용 연주회를 진행하는 장면, 미국 문화의 상징적 존재로서 마치 음악대사처럼 활동한 모습, 작곡에 대한 태도와 미국 음악에 관한 통찰까지도 엿볼 수 있다. 보너스로 1976년 파리의 상젤리제 극장에서 다리우스 미요의 발레음악 <지붕의 소>를 덤수룩하니 온통 수업을 기른 채 지휘하는 모습이 실렸다.



EuroArts DVD 2072308

모차르트, 베토벤의 관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오중주곡

세계 최고의 관악 앙상블이 연주한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귀한 실내악

관악기 주자들은 오케스트라 내에서 스타가 아니다. 곡 중에 매혹적인 앙상블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려운 명인기를 발휘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현악기군 중심으로 빛어지는 음향의 첨가제로 작용할 뿐이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관악기 주자들이 모여서 실내악단을 따로 조직하기도 하는데, 1983년에 시작된 '앙상블 빈-베를린'은 빈 필하모닉과 베를린 필하모닉의 최고 실력파 단원 5명으로 이루어졌다는 상징성과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말미암아 단연 최고의 관악앙상블로 인정받고 있다. 이 영상물은 앙상블 빈-베를린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지휘자이자 일류 피아니스트이기도 한 제임스 레바인과 함께 1986년 잘츠부르크 인근의 헬브룬 궁에서 공연한 실황이다. 피아노와 관악 앙상블을 위한 귀한 레퍼토리인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두 곡을 연주한다. 상당히 이질적인 질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악구를 주고받으며 절묘한 대조와 모방을 이루어나가는 묘미가 대단하다. 보너스로 제공된 '우리는 아주 재미있어요,'라는 47분짜리 다큐는 더욱 풍성한 기록이다. 관악기에 내재된 특유의 유머를 어떻게 리게티, 베리오같은 현대작곡가들이 이끌어냈는지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보충자료]

○ 앙상블 빈-베를린(약칭 EWB)은 1983년 최고의 주자들로 구성된 관악오중주단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빈 필과 베를린 필의 다섯 명의 솔로이스츠가 함께 연주해보기로 한 것이다. 첫 리더는 바순 연주자이자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밀란 투르크비치가 맡아 최근까지 이끌었다. 창단 10년째에는 “우리는 아주 재미있어요(“We have a lot of fun”)라는 다큐멘타리를 만들었으며 이 영상물에도 수록되었다. 앙상블 빈-베를린은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 제임스 레바인,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 엘레나 바슈키로바, 라르스 포그트 등의 피아니스트를 비롯하여 여러 장르의 예술가와 협력해왔으며 특히 폴리니와의 관계가 긴밀하다. 또한 레퍼토리의 확대와 관악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현대음악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2008/09 시즌에는 창단 25주년을 기념하여 유럽 각지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현재 멤버는 빈 필의 플루티스트인 볼프강 솔츠, 베를린 필의 오보이스트인 한스외르크 쉔렌베르거, 빈 필의 클라리네티스트 노르베르트 토이블, 빈 심포니의 바수니스트 리하르트 갈러, 금관악기인 혼을 부는 베를린 필의 스테판 도로르 구성되어 있다.



C Major Entertainment DVD

www.cmajor-entertainment.com



C-Major 701408

베르디: 오텔로

21세기의 새로운 드라마틱 테너 알렉산더 안토넬코의 놀라운 <오텔로>

베르디 만년의 걸작 <오텔로>는 셰익스피어의 원작보다 더 긴장감 넘친다는 평을 받은 한다. 그 이 유는 오텔로 역에서 드라마틱 테너의 모든 가치를 뽑아낸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방의 흑인이라 는 한계를 딛고 베네치아령 키프로스의 총독으로 부임한 오텔로는 젊고 아름다운 백인 아내 데스 데모나를 맞아들인다. 그러나 부하 이아고는 동료 카시오가 먼저 진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오텔로 를 파멸시키는 계략에 착수한다. 그 핵심은 사랑의 정표로 데스데모나에게 주었던 손수건을 이용 하여 오텔로의 질투심과 열등감이 끓어오르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전쟁영웅 오텔로는 자신을 다 스리지 못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다. 오텔로 역의 명가수는 한 세대에 한 사람만 존재한다는 말 이 있을 정도로 난역이다. 그 계보는 드라마틱 테너의 전설 마리오 델 모나코, 존 비커스,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쿠라로 이어졌다. 여기 라트비아의 새로운 테너 알렉산더 안토넬코가 도전한다. 어두 우면서도 품격 있는 음색, 영웅적인 체격과 웅모는 21세기를 대표할 드라마틱의 탄생을 선언한 다. 2008년 잘츠부르트 페스티벌에서 호평 받은 실황이며 러시아의 떠오르는 스타 마리나 폴라프 스카야(데스데모나), 스페인의 중견 카를로스 알바레즈(이아고), 리카르도 무티의 확고한 지휘, 상징 성과 조명 효과가 뛰어난 스티븐 랭그리지의 연출 모두 일대 호연이다.

[보충자료]

○ 이 영상물의 주목할 점은 라 스칼라에서 물러났음에도 여전히 카리스마를 발휘한 리카르도 무 티, 혹은 이아고를 부른 스페인의 중견 바리톤 카를로스 알바레즈보다 두 명의 신예 스타를 보는 재미에 있을 것이다. 테너 알렉산더 안토넬코는 1975년 라트비아의 리가에서 태어났다. 1997년 라 트비아 국립 오페라에 입단했는데 당시에는 테너 파트는 물론 카운터테너를 불렀다는 흥미로운 기 록도 있다. 2003년에는 라트비아 음악대상의 성악 부분을 수상했고 이듬해부터 국제적 활동을 본 격화하여 유럽 각지의 극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2008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오텔로>로 결정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2009년에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데뷔했다.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드라마틱 테너로 떠오를 모든 준비를 마친 셈이다.

○ 러시아 출신의 마리나 폴라프스카야는 2009년 6월 서울시향의 마스터피스 시리즈의 일환으로 콘서트 형식으로 공연된 <라 트라비아타>에 비올레타로 출연하여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풍부한 표현력과 성량, 정확한 음악성을 겸비한 보기 드문 대형 소프라노임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것이다. 모차르트에서 베르디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할 수 있는 기대주인데, 아직 일천한 경력 인데도 잘츠부르크같은 중요한 무대에서 데스데모나 역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미래가 보장된 가수라 할 수 있다.



C-Major 700908 [2DVDs]

바그너: 지크프리트

랜스 라이언(지크프리트)/ 유하 우시탈로(보탄)/ 제니퍼 월슨(브륀힐데)/ 게하르트 지겔(미메) 외/
주빈 메타/ 발렌시아 코무니타트 오케스트라

현란한 3D 컴퓨터 그래픽 위로 펼쳐지는 영웅 지크프리트의 성장드라마

'지크프리트'는 '니벨룽의 반지'의 세 번째 작품으로 천방지축의 소년 지크프리트가 신들의 운명 을 결정짓는 영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일종의 성장드라마다. 스페인 발렌시아에 위치한 최 첨단 공연예술장인 팔라우 데 레자르의 무대에 올랐던 '링' 프로덕션은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비디오테이프 프랑크 알레우의 두 눈을 압도하는 화려한 3D 컴퓨터그래픽과 바르셀로나가 자랑 하는 세계적인 공연단체인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상상력 풍부한 행위예술을 통해서 150년 전 바 그너가 꿈꿨던 총체적인 종합무대예술의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시켰다. 화려한 불거리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완성도 역시 빼어나다. 2006/7년 시즌 오페르벨트지에 의해 올해의 가수로 선정되었던 캐나다 출신의 차세대 헬덴테너 랜스 라이언이 강력한 성대와 흔들림 없는 스테미너로 지크프리트 를 열연하였고, 유하 우시탈로의 카리스마 넘치는 보탄과 미메의 현신과도 같은 게하르트 지겔의 연기도 강한 인상을 남긴다. 세계각지에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유망주들로 구성된 발렌시아 오 케스트라 역시 바이로이트가 부럽지 않은 장대한 바그너 사운드를 들려준다.

[보충자료]

○ '지크프리트'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크문트가 보탄에게 살해될 때 브륀힐데의 도움으 로 그곳을 탈출한 지글린데는 미메의 도움을 받아 지크문트의 유복자 지크프리트를 낳은후 사망한 다. 미메의 손에 천방지축으로 길러진 지크프리트는 아버지가 남긴 부러진 칼을 이어붙인 뒤 파프 너가 지키는 황금과 반지를 찾아 모험 길에 오른다. 용으로 변신한 파프너를 단칼에 물리친 지크프 리트는 새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고 전리품을 가로챈 미메의 계획을 간파하고 미메마저 살해한 다. 새의 인도로 마법의 불속에서 잠자고 있는 브륀힐데를 발견한 지크프리트는 자신의 용기를 시 험하는 보탄의 창을 부러뜨리고 브륀힐데를 잠에서 깨운다. 둘의 운명적인 결합과 함께 이 오페라 의 막이 내린다.

○ 영웅 지크프리트를 노래한 캐나다 출신의 드라마틱 테너 랜스 라이언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음 악원을 거쳐서 이탈리아에서 카를로 베르곤지와 잔니 라이몬디 등을 사사하면서 성악가의 길로 들 어섰다. 2002년 밀라노의 AsLiCo 국제 성악콩쿠르에서 우승하였고, 2005년 윈스턴에서 오텔로 로 데뷔하면서 독일 오페라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 현재 칼스루헤의 바디세 국립극장의 주역 가수로 활약 중이며, 로마, 칼리아리, 슈투트가르트, 드레스덴 등에서도 카바라도시, 칼라프, 지그문트, 지크프리트 등의 배역으로 호평을 받았다.



C-Major 701108 [2DVDs]

바그너: 신들의 황혼

랜스 라이언(지크프리트)/ 제니퍼 월슨(브륄힐데)/ 마티 살미넨(하겐)/ 알프 루카스(군터) 외/
주빈 메타/ 오케스트라 데 라 코무니타트 발렌시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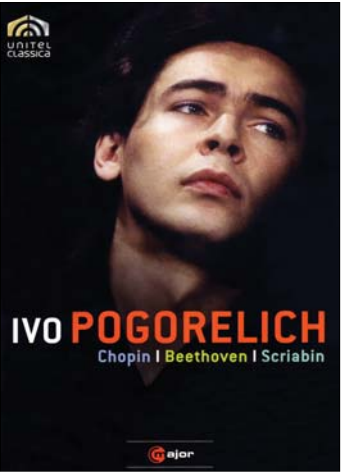
갓가지 첨단 테크놀로지들이 총동원된 21세기 형 SF 링의 장대한 대단원

스페인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발렌시아에 자리 잡은 최첨단 공연장인 팔라우 데 레자르의 '링' 프로덕션의 완결작. 극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해주는 정상급 비디오 아티스트 프랑크 알레우의 상상력 풍부한 컴퓨터그래픽과 스페인의 자랑거리인 퍼포먼스 그룹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애크로 바틱에 가까운 행위예술, 기계화되고 소비주의로 점철된 현대의 사회상을 표현한 롤란드 올베터의 무대미술, 흡사 영화 '제5원소'를 연상케 하는 추 우로스의 최첨단 의상이 어우러지면서, 21세기형 SF '링'의 대단원이 장대하게 마무리된다. 특히 이 프로덕션의 모든 테크놀로지들이 총동원된 마지막 발할 성의 파괴 장면은 바그너의 시놉시스를 가장 충실히 시각화해놓은 연출의 중 하나로 손꼽힐 것이다. 지크프리트를 열연한 캐나다 출신의 헬렌 테너 랜스 라이언과 브륄힐데를 노래한 풍부한 성량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제니퍼 월슨이 신예의 패기를 보여준다면, 극 전체의 든든한 중심을 잡아주는 마티 살미넨의 하겐은 베테랑다운 노련함을 대변한다. 세계각지에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유망주들로 구성된 발렌시아 오케스트라 역시 바이로이트가 부럽지 않은 장대한 바그너 사운드를 들려준다.

【보충자료】

○ '신들의 황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5시간에 가까운 연주시간을 필요로 하는 대작으로, 서막의 지크프리트와 브륄힐데의 이중창, 서막과 1막 사이의 간주곡인 '지크프리트의 라인여행', 2막의 하겐과 병사들의 합창, 3막의 지크프리트의 죽음과 장송행진곡, 그리고 오페라 역사상 가장 장대한 모놀로그로 손꼽히는 브륄힐데의 회생 장면과 같은 명장면들이 곳곳에 삽입되어 있다.

○ 극의 내용은 게르만의 중세 서사시인 '니벨룽의 노래'의 전반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니벨룽의 노래' 전반부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지크프리트는 브륄힐데와 결혼하길 원하는 부르군트의 왕 군터를 도와주고 자신은 군터의 여동생 크림힐트와 결혼한다. 브륄힐데는 자신을 제압했던 사람이 군터가 아니라 군터로 변신했던 지크프리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군터의 충신인 하겐과 모의하여 지크프리트를 암살하게 된다. 후반부는 훈족의 왕 예첼의 힘을 빌려 남편에 대한 복수를 하는 크림힐트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다. 바그너는 전반부의 내용을 각색하여 북구 전설을 토대로 역시 자신이 완성한 사이클의 이전 세 작품의 내용과 연결시켜 놓았다. 크림힐트는 '신들의 황혼'에서 군트루네로 이름을 바꾸었다.



C-Major 701308

이보 포고렐리치

쇼팽: 피아노소나타 2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7,32번/ 스크랴빈: 에튀드 Op.8-2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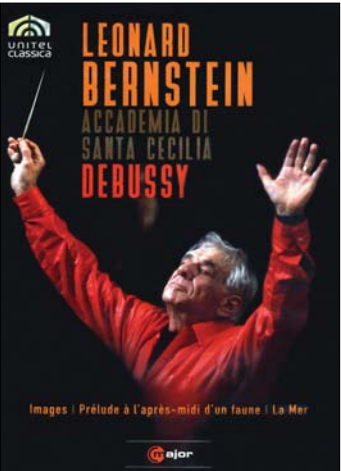
이 시대의 가장 개성 넘치는 피아니스트를 영상으로 만나다.

이보 포고렐리치는 1958년 유고연방의 수도였던 베오그라드에서 태어났다. 포고렐리치가 음악계의 이슈메이커로 부각되었던 것은 1980년 쇼팽 콩쿠르에서의 해프닝 때문이었다. 예선 3라운드에 서 그가 탈락하자, 당시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었던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그에 반발하여 콩쿠르 심사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후 포고렐리치는 아르헤리치의 든든한 후원에 힘입어 정상급 피아니스트로 승승장구했던 반면, 당시 우승자였던 당타이손은 이후 음악계에서 그리 큰 반향을 일으키질 못했다. 지난 2005년의 내한공연에서 중후한 풍채의 민머리 중년남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국내 팬들에게 당혹감을 주기도 했지만, 그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87년 8월 이탈리아의 빌라 콘타리니에서 촬영된 본 DVD에는 날카롭고도 댄대디했던 과거 미청년 시절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쇼팽의 피아노소나타 2번과 베토벤의 두 후기 소나타 27, 32번을 중심으로 이 개성 넘치는 피아니스트의 화려한 테크닉과 풍부한 표현력이 화면 가득히 펼쳐져나간다.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드뷔시

드뷔시 관현악의 성찬이 만년의 번스타인 지휘로 오롯이 담겼다!

레너드 번스타인은 1990년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기념하는 그 유명한 콘서트도 1989년 12월에 있었던 것이다. 같은 해에 있었던 또 하나의 위대한 공연이 6월에 로마에서의 드뷔시 콘서트다. 산타체칠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클로드 드뷔시의 〈영상〉, 〈목신의 오후 전주곡〉, 〈바다〉를 연주한다. 미술용어인 '인상파'로 유명한 드뷔시는 장기인 피아노만으로 색채적 효과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능수능란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도 실력을 발휘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세 작품이 이 한 장의 DVD에 오롯이 담겼다. 게다가 드뷔시의 영상자료가 생각만큼 풍부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자료적 가치는 배가된다. 그렇다면 번스타인과 드뷔시는 과연 어울리는 궁합일까? 그는 모든 종류의 음악과 뮤지컬, 영화음악에도 능통한 사람이지만 정통 클래식에서는 베토벤, 슈만, 말러 같은 독일 음악을 주로 지휘했다. 그러나 번스타인 스스로 〈바다〉에 대해 “소리로 그림을 그린 놀라운 걸작 아닙니까? 이런 눈이 아니라 귀를 위한 회화입니다.”라고 예찬했듯이 남국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굉장한 엑스타시에 잠겨, 게다가 정교한 세공을 곁들여 드뷔시의 본질에 접근한다.



C-Major 701608



Dynamic DVD

www.dynamic.it



Dynamic 33631

치마로사: 비밀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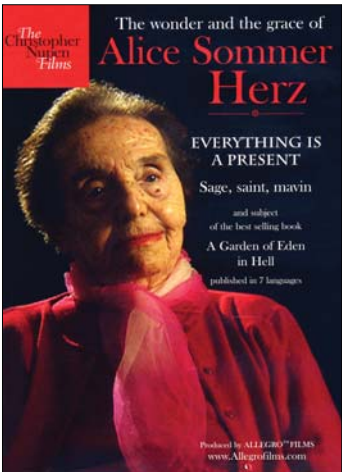
모차르트 3대 부파에 필적하는 당대 최고의 오페라 부파

도메니코 치마로사는 모차르트보다 6년 먼저 태어나 오페라 세리아와 부파에 두루 재능을 보였으며 전성기에는 러시아 궁정에서 대환영을 받았다. 오늘날 치마로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모차르트와 너무나도 비슷한 작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차르트와는 특별한 친분이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유하는 낙천적인 정서와 동요적인 선율은 당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정립된 시대양식인 셈이다. 치마로사의 대표적인 오페라 부파 〈비밀 결혼〉은 모차르트의 3대 부파보다 약간 늦게 작곡되었지만 부파의 전형적인 특징, 예컨대 부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사랑하는 연인들, 그들이 벌이는 계략에 넘어가는 바소 부포(희극적 베이스), 시종일관 실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등의 면모를 모차르트보다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벨기에 남부의 프랑스어 사용 지역인 왈로니의 아름다운 왕립 오페라에서 열린 2008년 2월의 최신 실황이다. 최근 급부상중인 리릭 소프라노 친치아 포르테가 주인공 카롤리나를 부르며, 부파의 탄생이 이탈리아의 전통희극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착안하여 모두 광대 화장을 하고 있다. 지휘자 조반니 안토니니는 이탈리아 시대음악 연주의 선두주자로 손꼽힌다.



Nupen Films DVD

www.allegrofilms.com



Nupen Films A11CND

앨리스 좀머 헤르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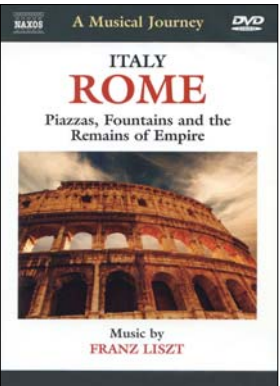
106세의 고령에도 놀라운 지혜를 지닌 한 여류 피아니스트의 이야기

음악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누펜은 지난 30년간 피아니스트 앨리스 좀머 헤르츠를 알고 지냈다. 그녀에 대한 경탄은 단지 음악가로서가 아니다. 한창 나이에 모친과 남편을 나치 수용소에서 잃고, 자신은 그 죽음의 캠프에서 100회 이상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어린 아들과 간신히 살아남았건만, 그 원수들을 모두 용서하고 온갖 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다. 그런 그녀를 사람들은 '지지 좀머'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존경한다. 그녀는 2009년 11월로 106세를 맞았다. "모든 종류의 미움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는 철학을 가진 너그러운 덕분인지 그녀는 지금도 피아노를 정확히 연주하고, 쇠퇴하지 않은 기억력과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 독일 음악과 나치의 관계를 다룬 "우리는 빛을 원한다."는 다큐에서 큰 도움을 받았던 누펜은 이번에는 그녀와의 인터뷰만으로 음악 다큐가 아닌 한 편의 휴면 다큐를 만들어냈다. 실로 경이로운 현자의 이야기다. 106회 생일이 지난 며칠 후 지지 좀머는 이렇게 누펜에게 말했다고 한다. "나이가 많은 것도 병이야.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지. 육체는 이전처럼 저항할 힘이 없고, 지금 마지막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보내왔으니까."



Naxos DVD

www.nax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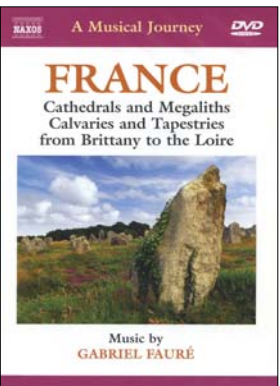


Naxos DVD 2,110239

음악여행시리즈 – 로마의 광장과 분수, 유적지

2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로마의 유적지와 광장, 분수

한때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라 불렸고 지금도 옛 영화의 그림자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원래 다신교의 성전이었던 판테온 신전, 콜로세움, 로마 포럼(공회 광장), 티토 황제의 개선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등은 그 대표적인 유적지라 할 것이다. 로마 시대의 유적지만이 아니라 오페라 〈토스카〉 3막의 배경인 성 안젤로 성, 성 베드로 광장을 비롯한 다양한 이름의 광장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낭만적인 트레비 분수를 만날 수 있다. 콜로세움의 아주 특별한 야경, 레스피기의 음악으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아피아 가도의 소나무도 빼놓지 않는다. 음악은 프란츠 리스트의 두 개의 피아노 협주곡과 그에 준하는 '죽음의 무도'다. 리스트는 생의 마지막 25년을 로마와 독일 바이마르, 그리고 헝가리로 삼분하여 지냈는데, 로마에서는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였으나 그의 피에 흐르는 비르투오조의 기질을 참을 수는 없었으리라. 그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들은 대단한 테크닉과 자유분방한 천재의 정신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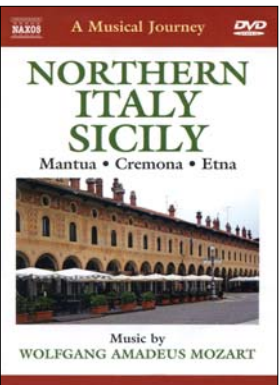


Naxos DVD 2,110249

음악여행시리즈 – 프랑스의 성당과 대자연

가톨릭권인 프랑스의 아름다운 성당과 자연을 포레의 음악과 함께

프랑스는 본질적으로 남유럽에 가깝다. 그 중요한 근거가 이탈리아, 남부 독일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권역이란 사실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문화를 얘기할 때 지역마다 위치한 멋진 성당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85km 떨어진 한적한 시골에 있는 샤르트르 성당은 스테인드글라스로, 그중에서도 두 탑 사이에 있는 장미창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다. 이어서 북프랑스의 브리타뉴와 노르망디로, 중서부의 프랑슈콩테와 부르고뉴로 여행한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여러 유명한 성당과 수도원은 물론 거석과 일몰, 자연풍광을 만난다. 이 모든 정경들이 가장 프랑스적인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의 가장 프랑스적인 음악과 더불어 펼쳐진다. 그의 곡들은 너무나 아가자기하고 사랑스러워서 〈레퀴엠〉조차도 죽음의 두려움은 찾을 수 없고 삶 너머의 아늑한 휴식만이 느껴질 정도다.



Naxos DVD 2,110251

음악여행시리즈 – 북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이탈리아 북부의 만토바와 크레모나, 그리고 시칠리아의 에트나 화산

이탈리아 북부의 만토바는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의 배경이지만 곤차가 가문이 통치하던 시기(14세기~17세기)에 풍성한 예술적 결실을 맺었다. 그 궁전과 줄리오 로마노, 안드레아 만테나가 창조한 멋진 프레스코화를 만난다. 역시 북부의 크레모나는 아마티, 가르네리, 스트라디바리 등 바이올린 명가의 산실로 유명한 곳이다. 지금도 명맥을 잇고 있는 스테파노 코냐의 작업실을 둘러본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의 상징은 아직도 위험한 유럽 최대의 활화산 에트나이다. 그 위용을 살펴본 후에 고대 그리스 문화부터 이슬람 문화까지 수많은 외국문명이 이탈리아 문화에 녹아든 시칠리아의 모습을 돌아본다. 음악은 모차르트의 위대한 두 교향곡 제41번 〈주피터〉와 제25번이다. 〈주피터〉는 로마 신화의 주신(主神)이며 교향곡 제25번은 모차르트의 마지막 이탈리아 여행에서 잘츠부르크로 돌아온 해에 작곡되었다. 과연 이탈리아의 풍광과 기질에 잘 어울리는 두 곡이다.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ACK

코드링 (40초)

코드링 (60초)

Rodgers: Do-Re-Mi (도레미 송)	##7168011	##7268011
Bernstein: West Side Story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7168040	##7268040
Chabrier: Espana (에스파냐)	##7168012	##7268012
Verdi: La Traviata - Drinking Song (축배의 노래)	##7168013	##7268013
Brahms: Cradle Song (자장가)	##7168014	##7268014
Paganini: La Campanella (라 캄파넬라)	##7168015	##7268015
Piazzolla: Libertango (리베르탱고)	##7168016	##7268016
Offenbach: Can-Can (캉캉)	##7168017	##7268017
Strayhorn: Take the 'A' Train	##7168018	##7268018
Caravan	##7168019	##7268019
Un bel di vedremo (어느 개인 날)	##7168020	##7268020
Anderson: Blue Tango (블루탱고)	##7168021	##7268021
Anderson: Belle of the Ball	##7168022	##7268022
Anderson: Chicken Reel	##7168023	##7268023
Fiddle-Fiddle	##7168024	##7268024
Sleeping Beauty: Waltz (잠자는 숲속의 공주:왈츠)	##7168025	##7268025
Swan Lake: Waltz (백조의 호수: 왈츠)	##7168026	##7268026
The Nutcracker: March (호두까기인형: 행진곡)	##7168027	##7268027
The Nutcracker: Dance of the Sugar Plum Fairies (호두까기인형: 사탕요정의 춤)	##7168028	##7268028
The Nutcracker: Chinese Dance (호두까기인형: 중국인형의 춤)	##7168029	##7268029

이용방법 (How to use) >>

곡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선택

예) 도레미 송 60초 컬러링 이용방법

##7268011 + 통화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40초-1,200원 | 60초-1,300원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ACK

일반 코드링 (40초)

롱 코드링 (60초)

Vivaldi: The 4 Seasons Violin Concerto Op.8 No.3 Autumn - I. Allegro	##7170133	##7270133
Bolling: Baroque And Blue	##7170134	##7270134
Bolling: Javanaise	##7170135	##7270135
Bolling: Irlandaise	##7170136	##7270136
Bolling: Amoureuse	##7170137	##7270137
Bolling: Jazzy	##7170138	##7270138
Garnier: Misty	##7170139	##7270139
Albeniz: Suite Espanola No.1 Op.47 - Cuba (스페인 모음곡 1번 - 쿠바)	##7170140	##7270140
Berlin: I'll see you in Cuba	##7170141	##7270141
Damare: Le Merle Blanc Op.161 (다마레: 하얀 티티새)	##7170142	##7270142
Faure: Berceuse Op.16 (포레: 자장가)	##7170143	##7270143
Piazzolla: Histoire Du Tango - Bordel 1900 (탱고의 역사 - 선술집)	##7170144	##7270144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667 'Trout' - Theme with Variations - Allegro Giusto	##7170145	##7270145
Over The Rainbow	##7170146	##7270146
We'll Meet Again	##7170147	##7270147
La Mer	##7170148	##7270148
Williams: Star Wars - Main Title	##7170149	##7270149
Mr. Lee	##7170150	##7270150
Feaster: Sh-Boom	##7170151	##7270151
Berry: Maybelline	##7170152	##7270152

이용방법 (How to use) >>

곡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 선택

예) '다마레: 하얀 티티새' 롱 컬러링(60초) 이용방법

##7270142 + 통화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SK Telecom 이용고객에 한하여 사용가능.

40초 - 1,200원
60초 - 1,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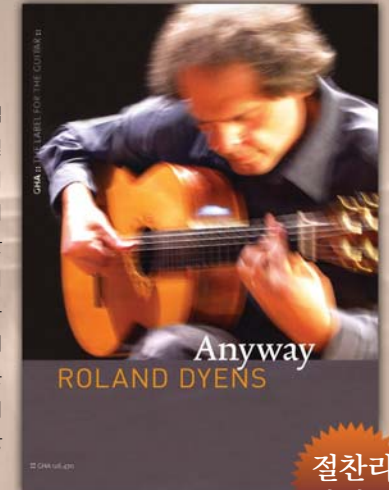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 받고 있는
프랑스의 클래식 기타리스트

롤랑 디앙스 Roland Dyens [Anyway]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 받고 있는 프랑스의 클래식 기타리스트
롤랑 디앙스의 첫 번째 공식 DVD.

'천재적', '마술적', '환상적' 등 그를 설명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의 의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이다. 영상에서 롤랑 디앙스는 가족, 기타에 대한 열정 및 철학을 희귀한 사진 자료와 함께 인터뷰 형식을 통해 자신이 담담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경이롭다고 평가 받는 그의 작곡, 편곡 작품에서 보여지는 다채로운 상상력과 아이 디어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밝히고 있다. 롤랑 디앙스 자신이 작곡하거나 편곡한 작품만으로 구성된 연주 또한 환상적이다. 바덴 파웰, 조비, 아리엘 라미레스의 주옥같은 남미 작품들, 'A Night in Tunisia', 'Funny Valentine'의 재즈 스탠다드의 맛깔스러운 편곡 작품들, 롤랑 디앙스 자신이 작곡한 'Anyway' 등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가는 것을 잊게 만드는 놀라운 연주이다. 특히, 카메라가 환상적인 롤랑 디앙스의 연주 테크닉을 바로 눈 앞에서 보는 듯이 클로즈업시켜 보여주어 있어 롤랑 디앙스의 연주법을 배우고 싶은 기타 애호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다. 롤랑 디앙스의 팬이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할 DVD.



GHA DVD 126470

절찬리
판매중



표지사진

빈 소년 합창단

<실크로드를 따라가며 부른 노래들>

<아울로스뉴스> 2010년 3월호

통권 제 42호 발행 : 2010년 4월 5일

발행인 : 임용묵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